



CONTENTS

2017 DECEMBER VOL.04



SPECIAL THEME 휴(休)

4

여는 글
시간 주권의 척도 '휴(休)'

6

Infographic
우리 삶의 휴(休)에 대하여

10

Essay
우아한 인생 2막을 그리며
배종훈 경남 진양고 교사

12

Interview 1
지리산 오부면에 살다,
농사를 짓다, 그림을 그리다
공영석 전(前) 교사

16

Interview 2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대전 에듀힐링센터 **김선희** 장학사, **전수진** 상담사

20

아름다운 동행
서로가 서로에게 참 소중한 우리
교사와 제자들의 영화관 나들이
안성표 충북 영동고 교사

26

먼 나라 교육 편지
우시(無錫): 알려지지 않은 도시 속으로
윤여경 중국 무석한국학교 교사

30

아는 공간
감성 공간의 시대 '평창생태공원'

32

트렌드 Go Go
새로운 트렌드, 숙박의 개념을 바꾸는 서비스

34

행복 만들기
공감으로 연출하는 새로운 도전!
뮤지컬연구회 '설레임(SEOULAME)'

38

네오필리아
더욱 특별하게 즐기는 연말 파티
수제 맥주 양조장 5곳

40

브랜뉴 여행
도나우강을 따라 흐르는 짙은 예술의 향기
오스트리아 '빈'



46
추천 핫플레이스
 경남 진주고 주변 추천 명소

48
문화 캘린더
 이달의 공연, 전시

50
재테크 팩토리
 직접투자 주식, 바로 알고 투자하기

52
The-K Focus
 “76만 공제회원 권익 대변 위해 노력할 터”
서보욱 공제회 대의원 · 대구가톨릭대 교수

54
The-K Family
 공유가치 창출하며 아름다운 상조 문화 선도하는
 예다함 ‘사랑(愛)다함’

58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0
독자 이벤트
 2017년 ‘마지막’ 이벤트 · 12월 즉석 당첨 이벤트

62
The-K Info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요 제도 안내

The·K

VOL.04

웹진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발행인 문용린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60)
www.ktcu.or.kr
발행일 2017년 12월 1일

편집
기자 이미진 leemj@swadcom.co.kr
객원 기자 이경희 유현경 정은주
교열 박혜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seo@swadcom.co.kr
디자이너 김진이 kj2@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무 김홍진 황원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적인 견해
 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시간 주권의 척도, 휴^休



온 산과 들녘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12월,
대자연의 한 품에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온 우리를 바라봅니다.
싸늘한 겨울바람에 뿌듯함도 잠시, 헛헛한 마음이 가슴을 메웁니다.
바로 휴(休)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현대인들의 휴에 대한 단상을 통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자어 '休(휴)'의 조합을 보면 사람이나 나무에 기대어 있는 형상입니다. 어찌 보면, 휴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연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이 자연과 함께하는 '휴(休)'를 꿈꿉니다. 이는 얼마 전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2050세대 직장인 90%가 힐링을 위해 찾고 싶은 곳으로 '숲'을 꼽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혹자는 진정한 휴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신조어가 '웰촌', '웰니스(wellness)'입니다. 웰촌이란 귀농·귀촌 붐에 힘입어 등장한 신조어로 농촌에서의 웰빙을 뜻하고, 웰니스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이라는 영어 단어의 합성어로 행복과 건강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이 중 웰니스는 여행의 새로운 키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은 어떤 휴식을 바라시나요?

'시간 주권'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도서 <시간으로 읽는 자본주의>에서 소개되는 시간 주권이란 '내 삶의 시간을 설계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휴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시간 주권을 갖는 것이야말로 '휴(休)'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이지 않을까요?

연말연시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 독자들 모두 시간 주권을 갖고 진정한 '휴(休)'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휴(休)를 그리시나요?

우리 삶의 휴(休)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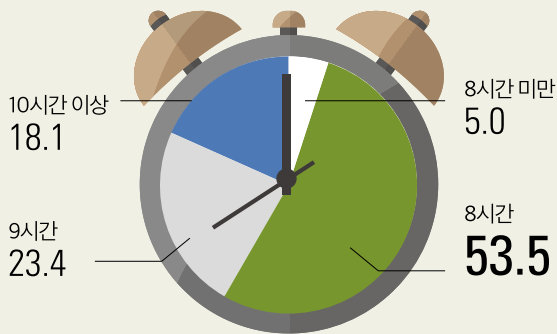
한 해가 저물어가는 즈음, 새벽을 밝히는 여명은 더욱 눈부시지만 합니다. 바쁘게 지나온 지난 1년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리고 잠시 휴(休)에 대한 생각이 미칠 때, 우리 회원들은 과연 휴(休)를 어떻게 보내기를 바라는지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2017년 10월 25일 ~ 30일
방법 e-mail을 통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설문조사
대상 전국 공제회원 2504명

성별	남성	29.8%
	여성	70.2%
연령	20대	8.3%
	30대	32.9%
	40대	31.3%
	50대	22.0%
	60대 이상	5.4%
직업	교원	60.2%
	비교원	39.8%
	유치원	2.2%
	초등학교	31.1%
	중학교	14.8%
근무하는 직장	고등학교	15.7%
	대학교·병원	24.4%
	교육 연수·행정·연구기관	4.2%
	기타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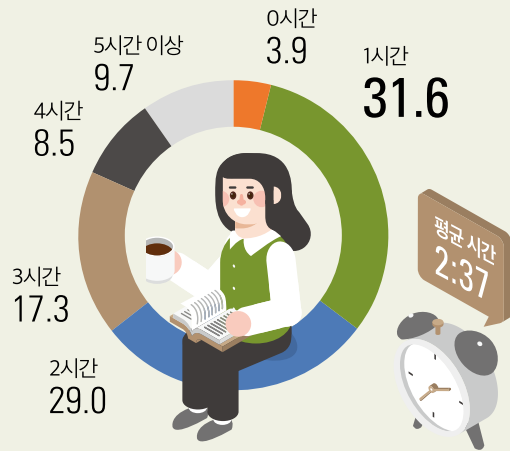
(단위 : %)

Q. 하루 평균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직장별 1위 응답 유치원 : 8시간(53.6%), 초등학교 : 8시간(70%), 중학교 : 8시간(55.9%), 고등학교 : 10시간 이상(40.2%), 대학교·병원 : 8시간(47.1%), 교육 연수·행정·연구기관 : 8시간(53.8%)

Q. 하루 중 온전히 쉬는 시간은 평균 몇 시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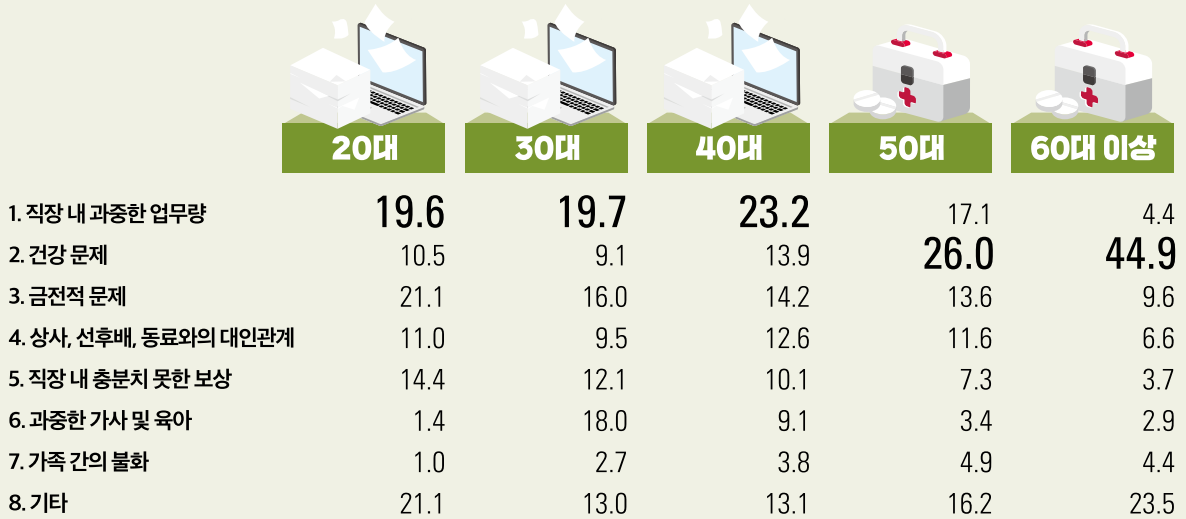


Q.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다' 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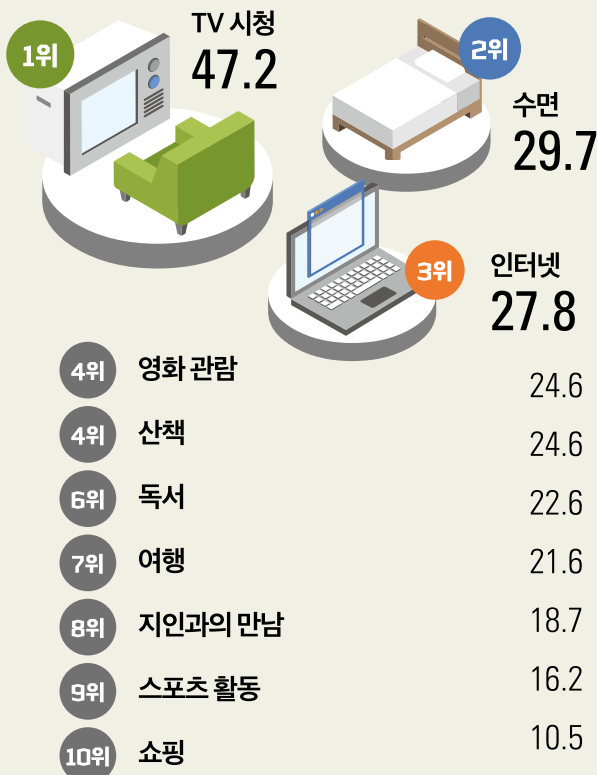


번아웃 증후군: 업무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다가 어느 순간 불타버린 연료처럼 무기력해지는 증상으로 수면장애,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

Q. 요즘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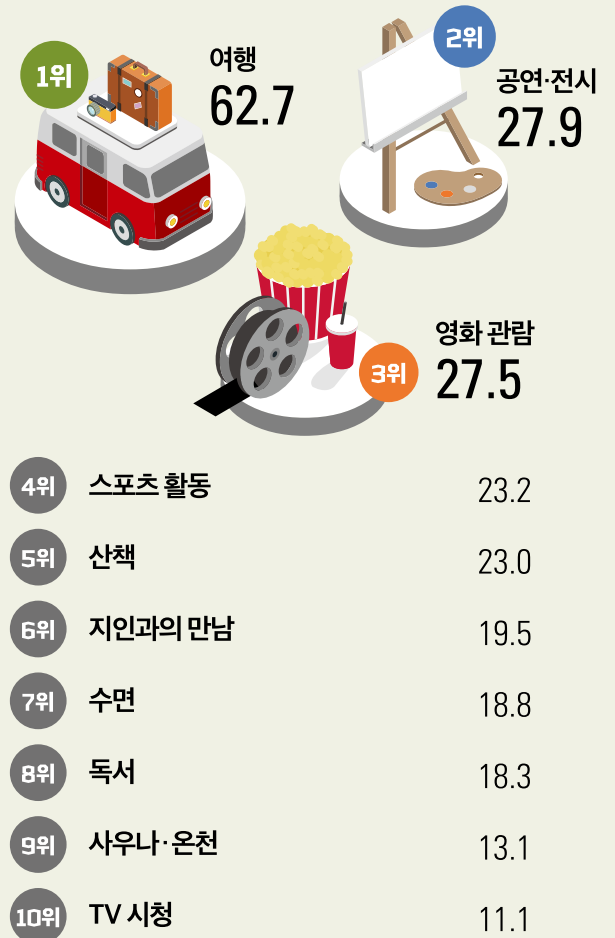


Q. 휴식·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TV 시청	34.9	45.0	49.0	50.3	56.6
수면	37.3	34.8	30.9	21.4	13.2
산책	11.5	17.5	24.9	34.7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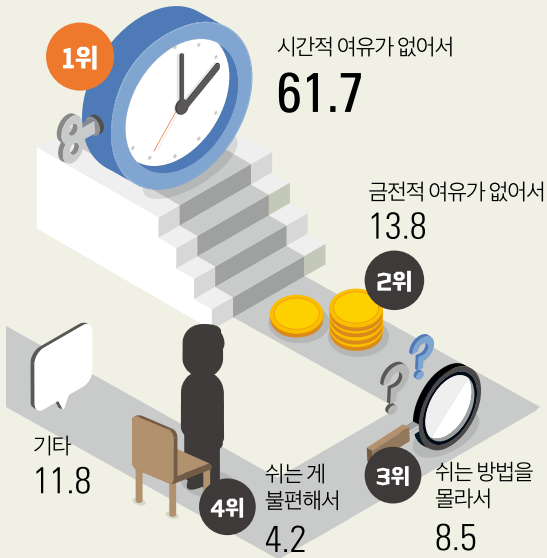
Q. 휴식·여가 시간에 희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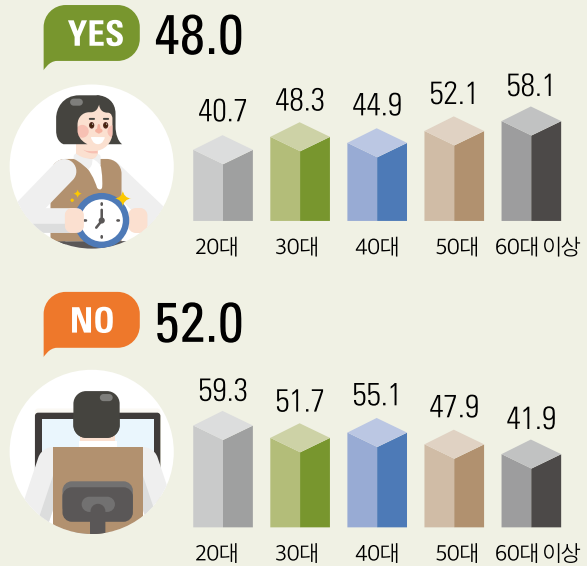
Q. 평소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Q. 만약 소득을 줄이는 대신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면 쉬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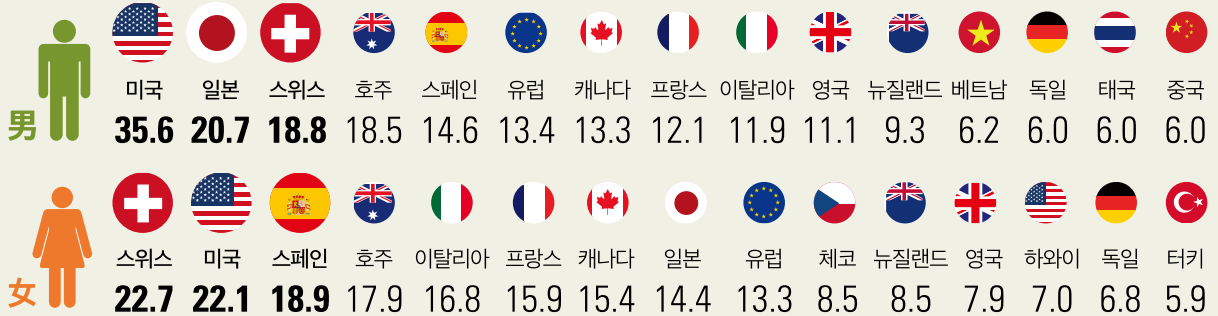
Q. 취미를 갖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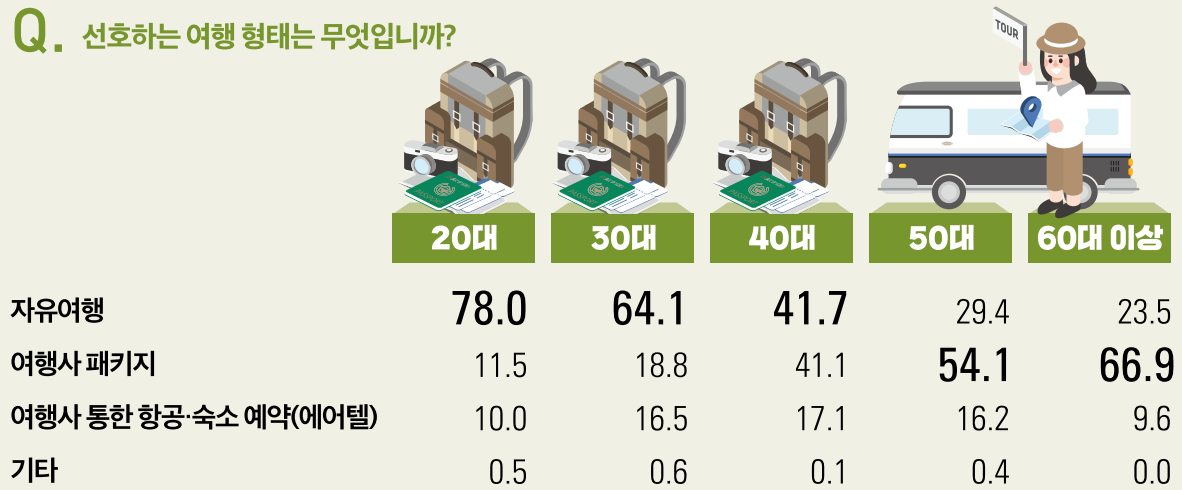
Q. 취미 생활이 없다면,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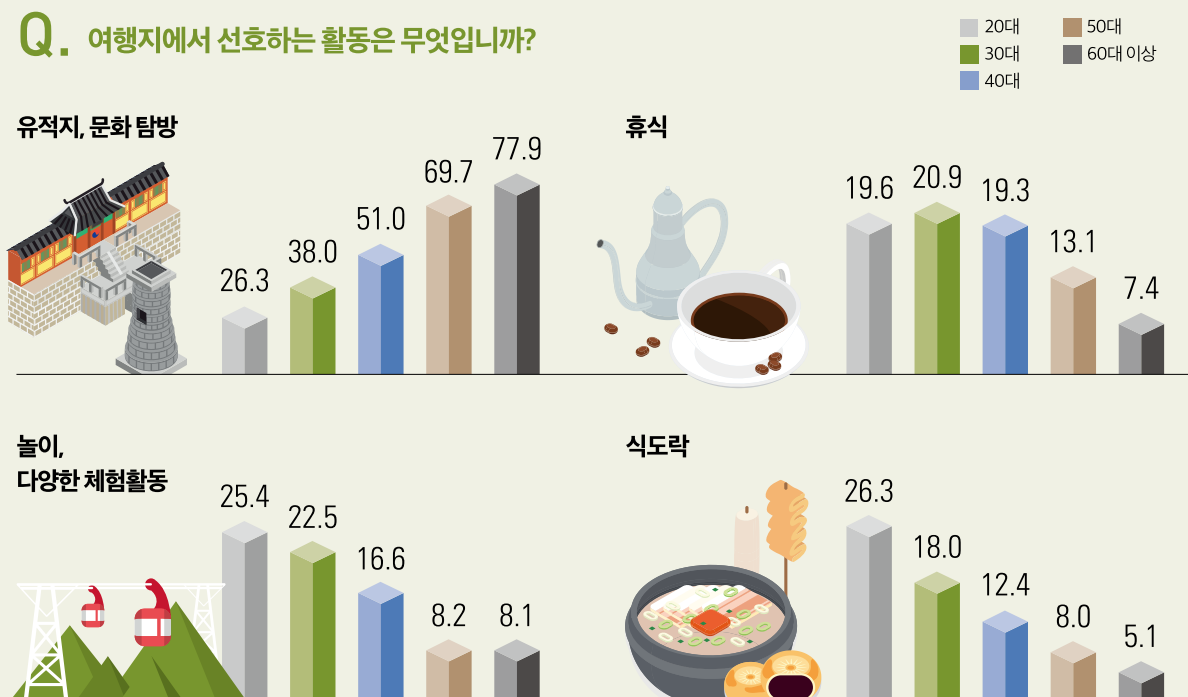
Q. 가장 여행 가고 싶은 나라는? (최대 3개까지, 주관식)



Q. 선호하는 여행 형태는 무엇입니까?



Q. 여행지에서 선호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우아한 인생 2막을 그리며



초임이나 다름없던 때 큰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은 뒤 첫 출근 날, 교무실 문을 들어서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40대 중반의 한 선배 교사가 교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력서에 잉크도 안 마른 젊은 선생이 들어오기 힘든 학교에 왔네”라며 던지듯 한 말도 생각난다. 그 후 주눅이 든 채로 몇 년간 교무실 문 옆자리를 지켰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 어렵던 선배 교사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 50대 후반의 교사가 된 내 모습을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교사로서 거창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보낸 생활을 되돌아보면 보람된 일은 물론 후회되는 일도 많았다. 학생, 동료와 조화롭게 지내려고 애쓰고, 그들에게서 인정받으며 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한 담담한 교사 생활이었다.

학교를 옮길 때도 매번 고민했는데, 이젠 한 학교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하니 새삼 교사로서의 학교생활이 애뜻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학교(교사)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 ‘홀가분함’을 만끽하고 싶다는 기대도 하게 된다. 때로는 그 홀가분한 일상의 기대로 조금해지기까지 한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교사라는 직업의 종착점에 도달하고 있다. 열정을 쏟던 교사직에서 물러나면 또 다른 인생 2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요즘 흔히 ‘100세 인생’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를 80세 전후로 본다면 나에게 방학과도 같은, 보상과도 같은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그 홀가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만, 종종 ‘정년 후의 시간을 어떻게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

퇴직 후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듣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교사 생활의 경험을 살려 새 직장을 갖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따금 퇴직한 한 선배 교사가 새 직장을 얻었다는 부러운 소식을 듣기도 하지만, 그런 분은 몇 안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로 인한 막연한 불안은 정년 이후를 우아하게 보낼 수 있는 묘안을 찾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좋은 롤모델을 찾게도 된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 중 하나는 남에게만 일어날 것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은퇴 이후 남자의 삶을 풍자하는 ‘일식이, 이식놈, 삼~’라는 웃스갯소리와 은퇴한 남자들이 거치는 ‘세계 4개 대학’이라는 ‘웃픈’ 유머가 생각난다. 하루 종일 바쁘게 드나드는 ‘하바드대’ 시절도 잠시, 하루 종일 와이프 옆에 붙어 있는 ‘하와이대’, 동네 경로당을 드나드는 ‘동경대’, 방에 콕 박혀 있는 ‘방콕대’ 순의 처지가 된다는 얘기다. 이러한 풍자가 남의 말이 아닌 나에게 딱칠 일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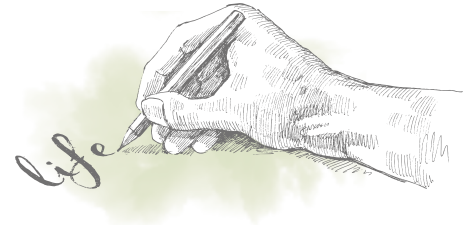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는 미리 준비해서 인생 2막을 우아하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늙는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고,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20대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다.

퇴직한 선배 교사들을 보면, “이 좋은 것을 진작 배우지 않고 뭘했을까?” 하면서 골프에 빠지거나, 늘 해오던 운동이나 새로운 취미 생활로 소일을 하거나, 귀농·귀촌을 해서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실천하거나, 그 외 소소한 일거리를 찾아 열심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퇴직한 선배들을 통해 보듯이 은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결국, 은퇴 이후 의미 있는 삶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주도성’이 아닐까. 주어진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시간에 얽매어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을 마음껏 할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하거나, 자동차로 해외 여행을 하거나, 관심 있는 것을 마음껏 배워보거나, 취미 생활에 깊이 빠져보거나, 재능기부식의 봉사활동을 해보거나, 귀농·귀촌하여 자연과 함께하거나….

결국, 은퇴 이후 의미 있는 삶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주도성’이 아닐까. 주어진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시간에 얽매어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을 마음껏 할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법륜 스님은 ‘나이 들기의 장점’이라는 글에서 ‘나이가 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젊었을 때보다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고, 흥분하게 살 수 있고, 앞만 보고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고, 자식 키우느라 못했던 일들을 해볼 수 있다’며 노년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삶이란, 시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될 수도,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다.

내가 꿈꾸는 우아한 인생 2막은 소박하다. 가족과 함께하고 싶고,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전원생활을 하며 가족이 먹을 채소나 곡식은 직접 지어 먹고 싶고, 국내외에 덜 알려진 관광지도 많이 다녀보고 싶고, 어려운 이웃이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도 하고 싶고, 취미나 야외 활동 또는 SNS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즐거운 교류도 하고 싶다.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린다. 산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운이 좋다면 오르막에서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내리막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전투적으로 수업에 들어간다.

배중훈

1962년 경남 진주 출생. <준비하는 10대>, <진로지도 워크북>, <진로지도의 이론과 실제> 등의 책을 펴냈다. 현재 경남 진주 진양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농사를 짓다, 그림을 그리다 지리산 오부면에 살다,

Drawing

공영석
전(前)
교사

100세 시대를 맞이한 만큼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은 이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됐다. 그러나 오래도록 몸에 익은 일을 접고 선뜻 새로운 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선택할 용기를 내는 이가 얼마나 될까. 10여 년간 몸담아온 미술교사의 길을 접고 지리산 오부면으로 귀농한 공영석 전(前) 교사. 깊은 산속, 직접 지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용감한 사람이다.

흙이 좋아 흙으로 돌아가다

굳이 마중을 나오겠다는 공영석 교사를 만난 곳은 지리산 천왕봉 동북쪽에 위치한 경남 산청 오부면사무소 앞. 아내와 함께 커다란 승합차를 타고 등장한 그는 “따라오세요”라는 말을 남긴 채 훌훌 앞장서 달린다. 그리고는 자꾸만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라도 마주치면 올라온 만큼 후진해야 할 듯싶은데, 오르면 오를수록 맞은편에서는 절대 차가 오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든다.

무성한 나뭇잎이 터널을 만든 작은 언덕길을 지나니 불쑥 집 한 채가 나타났다. 새파란 하늘을 이고, 질푸른 산을 병풍처럼 감은 채 오롯이 서 있는 이 집이 바로 공영석 교사 가족이 사는 곳이다.

“3년에 걸쳐 천천히 직접 지은 집이에요. 집 짓는 기술요? 지으면서 배우고 익혔죠. 하하.”

운이 반질반질 나는, 뼈거덕 소리가 정겨운 마루를 그가 잠시 딛고 선다. 공영석 교사가 오랜 교직 생활을 뒤로하고 귀농을 선택한 지 어느덧 25년, 이곳 산청군 오부면은 이제 이 가족에게 돌도 없는 안식처이자 제2의 고향이 됐다. 부산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출신으로 부산과 함양에서 미술교사 생활을 해온 시간이 대략 10년이니, 이제는 교사로 지낸 시절보다 귀농해서 살아온 시간이 훨씬 긴 셈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왜 안정적인 자리를 거두고 귀농을 결심했는

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도시에서 찾아온 사람들의 궁금증에 공영석 교사가 다시금 미소를 짓는다.

“화가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었죠.”

미술교사, 벽화로 마을을 바꾸다

산청군 오부면에서의 생활은 도시처럼 복잡하지 않다. 공영석 교사는 한국화를 전공한 부인 서원정 씨와 봄부터 가을까지는 부지런히 먹고 살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사일을 쉬는 겨울에는 그림을 그린다. 아들 민성 씨는 독학으로 익힌 기타 실력으로 지난해 콜텍문화재단이 주최한 ‘제7회 어쿠스틱기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이고, 막내 태현이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장난꾸러기 산골 소년으로 쑥쑥 자라고 있다.

공영석 교사가족은 사실 산청군에서는 꽤나 유명한 인물이다. 교사가 귀농을 하고, 부부가 모두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 외에도 ‘벽화를 그리는 가족’이라는 또 다른 이름 때문이다.

민성 씨는 기타 외에 그림도 그리는데, 부모님과 함께 그린 벽화도 두 작품이나 된다. 마을 입구에 있는 창고 벽면에 그려진 벽화와 오부면사무소 근처의 음촌마을에 있는 벽화다. 특히 음촌마을 민안부 선생의 비석 뒤에 그려진 벽화는 높이 4.5m, 길이 20m에 달하는 초대형 작품으로 부부와 아들, 세 사람이 달라붙어 꼬박 두 달 만에 완성해냈다.

유명한 벽화마을들이 심심찮게 눈에 띄는 세상, 공영석 교사가족이 그린 벽화는 그 특별함으로 더욱 주목받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일반 벽화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세밀함 때문이었다. 벽화 속 숲은 바람을 따라 일렁일 것 같고, 서원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올 것 같다. 화를 치면 날아가는 백로 또한 한눈팔았다간 벽화 속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 그림은 재료부터 다른 걸 씁니다. 흔히 쓰는 페인트가 아니라 아크릴물감을 쓰거든요. 페인트는 특성상 세밀한 묘사가 힘들지만 아크릴물감은 아주 작은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벽화를 그릴 때 주문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그 범위 안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공을 들여 마을의 이미지까지 생각하며 꼼꼼히 붓질한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 그래서 좋은 인생

점심 준비에 한창이던 부인 서원정 씨가 공영석 교사에게 시금치를 따다 줄 것을 부탁했다. 토끼와 닭, 메추라기가 있는 작은 우리를 지나 열무와 배추밭을 거치니 고라니를 막기 위해 낮은 울타리를 둘러놓은 아담한 시금치밭이 나온다. 남편이 작은 시금치를 뿌리째 쑥쑥 뽑자, 잠시 뒤 나온 아내는 부추밭에서 부추를 송송 뽑아 든다. 그렇게 멀치 육수를 내어 부르르 끓여 낸 잔치국수가 안마당 나무 탁자에 차려진다. 가을 햇볕이 온화하게 내려앉은 식탁, 야옹거리는 고양이들이 저만치서 지켜보는 점심상. 그 가운데서 가족은 소박하고 넉넉한 점심을 함께 나눈다. “부산과 함양에서의 교직 생활은 제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래 선생님들이 많아서 친하게 어울리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했죠. 학생들도 예뻐어요. 순박했고,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웠다고 할까요? 미술은 과목 특성상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정서 함양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연결해 교육하기도 수월했습니다. 학교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경치 좋은 데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야외 스케치도 많이 다녔죠.”

과거를 회상하는 그의 눈길이 대롱대롱 처마 밑에 매달린 주홍빛 발가벗은 감에 잠시 머물렀다 떠난다.

화가를 꿈꾸며 이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온 공영석 교사를 두고 혹자는 무모한 선택을 했다고 할지 모른다. 전업 화가가 되고 싶었다면 어쩌면 도시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는 일이 어찌 경제 논리로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유기농 농작물을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흙과 가까이 살면서 내 먹을거리는 내가 기르고 싶다는 소망을 이룬 겁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조용히 웃는다.

미래, 포부, 계획, 목표라는 단어는 공영석 교사에게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 그저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며 열심히 쌀과 채소를 재배하며 온 가족이 나누어 먹고, 꾸준히 벽화를 그리면서 자신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그의 남은 꿈이다.

자연에 순응하며 무던히 사는 공영석 교사 가족.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그들의 삶은 천천히 온화하게 흘러가고 있다.



미래, 포부, 계획, 목표라는 단어는 공영석 교사에게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 그저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며 열심히 쌀과 채소를
재배하며 온 가족이 나누어 먹고, 꾸준히 벽화를 그리면서
자신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그의 남은 꿈이다



모두 행복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

Healing

대전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김선희 장학사 · 전수진 상담사

2016년 5월 10일, 대전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에듀힐링센터를 개원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위한 '마음단단 프로젝트'로 시작해 불과 1년 6개월 남짓한 동안 전국 최대 규모의 공교육 내 심리상담, 정서치유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모두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대전으로 가보았다.

“교사가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에듀힐링센터의 모태는 2015년 5월 대전시교육청에 사무실 한 칸을 얻어 열었던 'Tee(Teacher education emotion)센터'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교사를 위한 최초의 전문심리상담센터로 자리매김한 지 딱 1년 뒤 학부모를 위한 Pee(Parents education emotion)센터, 학생을 위한 Wee(We education emotion)센터로 구성된 에듀힐링센터를 개원했다.

2016년 1년간 에듀힐링센터가 거둔 성과는 놀라웠다. 교원 1536명, 일반직 471명, 학부모 520명, 학생 903명이 이용했고, 에듀-파워 연수에서는 430명이 참여하여 평균 96.5%라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에듀힐링센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탁월한 기획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선희 장학사.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학교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위한 전문심리치료기관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운을 뗐다. “나를 따라와 주지 않는 아이들이 못마땅했고, 어느 순간 그게 제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달라지려면 교사가 먼저 달라져야 함을 느낀 거지요.” 이어 그는 “교사가 만나는 수많은 학생을 생각해 보면 교사가 왜 행복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교육하는 학생들이 결국은 행복한 우리나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은 지금의 에듀힐링센터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배경 설명으로 충분하다.





김선희 장학사(좌), 전수진 상담사(우)

“상담을 통해 찾은 보람, 모두가 함께 가는 길”

에듀힐링센터는 ‘치유’는 물론 ‘예방 교육’에도 큰 방점을 찍고 있다.

“센터 내 정책은 크게 ‘맞춤형 원스톱 힐링’, ‘365 에듀-코칭’, ‘에듀힐링센터 플랫폼’, ‘에듀힐링 행복나눔’으로 나뉘집니다. 각 카테고리 안에서 개인 상담&코칭, 교직원·학생·학부모 연계 상담, 에듀-코칭 직무 연수, 에듀-파워 연수, 상담기관 네트워크 운영, 학교 상담 콘텐츠 개발, 찾아가는 에듀힐링 특강, 에듀-코칭 연구회 등이 운영되고 있어요.”

지난 7월부터 센터에서 상담 매칭, 개인 상담 매칭, 개인 상담, 사이버 상담, 전화 상담 업무 등을 맡은 전수진 상담사는 에듀힐링센터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교사도 상처받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교사도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사는 그것이 교사의 문제인지, 아이의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상담하면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판단의 힘을 얻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교사는 그것이 교사의 문제인지, 아이의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상담하면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판단의 힘을 얻어갈 수 있어요. 또, 올바른 자녀 양육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은데, 상담을 통해 올바른 자녀교육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전수진 상담사는 실제로 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던 한 교사의 사례를 들려주었다.

“수업 중 지시를 전혀 따르지 않고 걷도는 아이 때문에 휴직까지 생각하고 계시던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정된 12회기 상담 중 3회기까지는 계속 울다만 가셨지요. 4회기부터는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해 상담과 연수를 통해 나중에는 그 학생을 감당할 힘을 얻어가셨죠. 그 선생님의 경우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아이의 부모 뭇까지 하려다가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였어요. 결국, 그 아이 부모님까지 센터로 인도해 상담을 함께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학교와 집에서 일관되게 아이를 대하자 교육 효과가 정말 컸어요. 한 아이가 변화하는 과정을 모두가 본 거예요. 상담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전수진 상담사가 미소를 짓는다.

복합문화치유공간, 에듀힐링진흥원을 목표로

에듀힐링센터의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행보는 수많은 화제와 파급 효과를 낳았다. 전국 최초로 ‘심리 상담’, ‘코칭’이라는 개념을 교육에 도입해 개인의 성장과 치유를 돕고, ‘에듀-코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 문화와 가정 문화를 성공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전국 시·교육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찾아와 운영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 정책 등을 꼼꼼히 살펴본 이유도 바로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 덕분이다.

에듀힐링센터의 성과는 수많은 수상 기록으로도 입증되었다. 2015년 교육부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6년 교육부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대상을 받았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정부 3.0 국민체험마당에서는 행정자치부 선정 최우수 부스로 선정되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6. 2. 3. 개정, 2016.

8. 4. 시행) 개정) 앞서 교원 심리상담·치유센터를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교육부 최우수 ‘교원치유지원센터’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선희 장학사는 이를 두고 “우리 센터가 국가정책을 선도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에듀힐링센터의 영향력은 비단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 까닭이다. 대만 가오슝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국학교 선생님들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듣고 ‘텔레 상담’이라는 원격 치유 시스템을 통해 타국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운 것. 이 외에도 외국 대사관 직원이 정부 3.0 국민체험마당 부스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향후 해외 진출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에듀힐링센터의 목표는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다. 상담과 치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에듀힐링센터에 문화, 예술까지 더한 에듀힐링진흥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의 부속기관으로 독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기본으로 하되 힐링 닥터, 힐링 변호사를 두고 몸의 병은 물론 법률적 처리가 필요한 부분까지 돕는 거죠. 생활관을 지어서 교권을 침해당한 선생님이 쉬면서 일대일 매칭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누구나 오며 가며 들을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도 함께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완성되면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 교육기관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가 행복하면 학생이 행복합니다’, ‘부모님이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합니다’, ‘학생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를 기본 철학으로 새로운 치유·예방·교육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대전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돌아오는 길, 이곳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 행복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을 확고히 믿게 된 하루였다.

서로가 서로에게





참 소중한 우리

가능하기만 하다면 오래도록 붙잡아두고 싶은 순간이 있다. 숨넘어갈 듯 웃음이 터지고, 진심이 묻어나는 칭찬에 입꼬리가 썰룩거리며, 가슴을 툭 치는 몽클함이 문득문득 찾아오기도 하는, 감성 짙은 오늘 같은 순간 말이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지만 온 힘을 다해 표현하고 느끼기에 더욱 소중히 외닿는, 안성표 교사와 네 제자의 하루를 함께했다.



안성표 교사와 제자들의 영화관 나들이

가족보다 더 살가운 사제지간

햇살처럼 부서지는 웃음소리, 자유분방한 발걸음, 널찍한 공간만큼의 여유, 한갓진 일요일의 용두공원에 기분 좋은 소란이 있다. 오늘은 충북 영동고등학교 안성표 교사와 학산고등학교 네 제자의 '번개 모임'이 있는 날. 매우 떡볶이를 먹으며 마지막으로 수다를 떠는 지난 늦여름이니, 거의 두 달만의 만남이다. 그새 바람은 꽤 서늘해졌고, 고3이라는 긴 터널 끝에 선 제자들은 조금 더 성장한 듯하다. 그 나이 때에만 느껴지는 여고생의 발랄함도 전혀 빛바래지 않았다.

“선생님, 저 귀 뚫었어요! 유정이는 앞머리 잘랐어요.”, “저는 눈썹 다듬었어요.”, “저는 새 옷 샀어요. 안경도 바꾸고요.”

아이들은 단짝 친구에게 하듯 공원을 걸으며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 재잘재잘 쏟아낸다. 그도 그럴 것이 학산고등학교에서 날마다 얼굴 맞대고 생활하다 올해 초 안성표 교사가 근무지를 옮겼으

니, 이들에게는 만나지 못한 두 달이 마치 2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법도 하다.

“학산고는 3학년 전체가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예요. 그러니 자주 마주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교무실을 수시로 드나드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요. 영어 교과 담당 교무부장으로 재직했는데, 학산고에서 생활하는 동안 워낙 정이 많이 들어서 제게는 정말 특별한 제자들이죠. 제 교직 인생에서 ‘학산고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요.”

안성표 교사가 먼저 나서서 ‘간식 번개 모임’을 주도하고, 일상의 안부를 묻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자들을 생각하는 그의 진심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오늘 모임 역시 선생님의 ‘번개 공지’로, 그리고 제자들의 ‘대환영 응답’으로 성사됐다. 사실 안성표 교사는 제자들과 이런 시간을 작은 전통처럼 지켜오고 있다. 시골 지역 학생들이 더 많은 문화 체험 기회를 얻기를, 또 수업에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밝아지는 모습이 눈에 보일수록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쏟게 된다는 안성표 교사는 자신의 노력이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을 하면 그보다 값진 보람이 없다고 말한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한 게 1995년이니 어느덧 22년 역사가 되었다. “영어교사 3년 차 때 미국 캘리포니아로 5주간 어학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때 아이디어를 얻었죠. 수업 중에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아이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itself, myself, expect’라는 제 좌우명이 적힌 티켓을 나눠 주고, 학기 말에 티켓을 가장 많이 모은 티켓왕을 선발해 선물로 영화 관람과 식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3년 동안의 추억이 새록새록

그나저나, 오랜만에 찾은 용두공원은 가을이 한창이다. 안성표 교사와 제자들은 ‘이 공원이 이렇게 멋진 곳이었느냐’며, 무르익은 계절을 제대로 만끽한다. 아마 함께여서 모든 게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일 터. 그러다 뜬금없이 키 재기 한 판이 벌어진다. 안성표 교사는 훌쩍 자란 제자가 대견한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가은이 키 큰 건 알았지만 오늘 보니 애 엄청 크다. 벌써 175cm야? 그래서지 너는 베이스 칠 때 정말 멋지더라.” 그 순간에도 칭찬 포인트를 잊지 않는, 역시 다정다감한 교사다. 공원에서 이야기도 실컷 나눴겠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춰 영화관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한다. 용두공원에서 언덕길을 내려와 영동천을 건너면 바로 영화관이 나오니 걸어가기에 무리가 없는 거리다. 길을 걷다 보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래전 추억담이 튀어나온다.

“그리고 보면 혜진이가 참 많이 달라졌어. 1학년 때는 눈도 못 마주칠 만큼 수줍음 많고 말수가 적었는데 어느 날 혜진이가 나한테 처음으로 장난을 치는 거야.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는 숨은 거지. 아니, 혜진이가 장난을 치다니! 기분 좋은 충격이랄까, 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엄청 생생해.”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밝아지는 모습이 눈에 보일수록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쏟게 된다는 안성표 교사. 그는 자신의 노력이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을 하면 그보다 값진 보람이 없다고 말한다. 사실 이는 제자들이 먼저 인정하고 존경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온 힘을 다해 임하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지난번 운동회 때는 너무 열심히 뛰어서 허벅지 뒤 근육이 파열된 적도 있잖아요. 역시 학산고 4대 천왕 중 한 분으로 인정할 만해요. 모든 면에서요.”

새로운 시작의 설렘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15분쯤 걸었을까. 어느새 영화관에 도착했다. 올해 초 문을 연 지역의 유일한 영화관이다. 일단 서둘러 표를 사고, 건느라 허기진 배는 영화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달콤 짭짤한 팝콘으로 달래기로 한다. 생각해 보니 간식 번개는 자주 했지만 다 함께 영화까지 보는 건 이번이 처음. 여러모로 특별한 날이다.

“때마침 유정이 생일이기도 하네. 오늘을 기념해 내년 10월에도 3학년 친구들과 함께 모이면 어떨까. 아마 대부분 영동을 떠나 있을 텐데,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이면 좋겠다.” 선생님의 제안에 아이들도 대찬성을 외친다. 정말이지 곧 수능이 끝나고 각자 대학에 진학하면 지금처럼 모일 기회도 드물어질 터. 아직 시간이 남긴 했지만 벌써부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방법이 없다.

“선생님이 학산고를 떠나실 때도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우리랑 같이 졸업하기로 해놓고 어디 가시느냐’며 많이 울기도 했고요. 인천에서 전학 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도 선생님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다정하게 챙겨 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더 멀리 떨어지면 정말 아쉬울 거예요. 선생님은 제게

가족 같은 존재니까요.” 선생님을 가끔 ‘아빠’라고 부른다는 가은 양이 말한다.

발랄함이 매력인 민희 양도 “선생님은 제 아빠와 다름없기 때문에 아빠 못지않게 사랑하고 싶어요. 제 마음 아시죠?”라며 살가운 고백을 덧붙인다. 한결같이 찾아뵙겠다는 혜진 양도, 결혼식 때 꼭 와달라며 앞선 당부를 건네는 유정 양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애정이 뚝뚝 떨어진다. 역시,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됨됨이를 갖춘 사람이 되기를, 공부보다 바른 삶을 먼저 배우길 바라는 선생님의 제자답다.

“다들 고맙다. 나도 너희 덕분에 교직 생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많이 생겼어. 이제 더 넓은 곳에서 꿈을 펼치게 될 텐데, 뭐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최고란다. 너희 모두 충분한 역량을 갖췄으니 원하는 일을 향해 즐겁게 나아가길 바란다. 아, 영화 시작하겠다. 얼른 들어가자.”

오붓하게 모인 공간에 불이 꺼지고 현실 세계가 잠시 닫힌다. 그러고는 기대하던 영화가 드디어 시작된다. 머지않아 오늘 모인 이들의 새로운 꿈도 영화처럼 펼쳐질 터. 앞으로 탐닉해나갈 미래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오늘의 추억은 두고두고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게 분명하다.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10줄 내외로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동행을 떠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leenj@swadcom.co.kr

MINI INTERVIEW

최유정(학산고3)



스카우트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추억이 더 많이 쌓였죠. 같이 캠핑을 자주 갔는데, 거기서 텐트 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두고두고 웃음 나는 이야기거리도 만들어주셨어요. 한마디로 제 학창 시절을 더욱 빛나게 해주신 분이죠. 그리고 오늘이 제 생일인데요,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에 존경하는 선생님, 사랑스러운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또 하나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민희(학산고3)



수업 시간에 모은 티켓으로 선생님과 영화를 본 적은 있지만 친한 친구들과 함께한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더욱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매일 붙어 지냈는데, 덕분에 가만 갈수록 서로의 속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고, 크고 작은 오해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스승과 제자일 수 있어서, 친구일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해요.

사제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용두공원

지역의 대표 생활체육 공간이자 문화 명소로 산책로와 운동 시설, 생태 연못 등이 잘 가꾸어져 있다. 계단을 따라 혹은 산책로를 돌아 끝 지점에 위치한 용두정에 오르면 시내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일몰 또한 손에 꼽을 수 있는 장관이다. 공원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 분수에서는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 음악분수 공연도 열린다.

📍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용두공원로 42



영동천변

영동 시가지를 흐르는 영동천을 따라 산책로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잘 다져진 흙길과 나무데크가 어우러진 것이 특징. 주차장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산책을 위해 들리기 좋다. 또 밤이 되면 화려한 불빛이 장관인 영동교도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일품이다. 얼마 전에는 영동천의 수중 생태계 보전을 위해 대농갱이, 동자개 등 토종 어류 치어를 방류하기도 했다.

📍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일원



레인보우영화관

영동군 유일의 영화관으로 얼마 전 개관 1주년을 맞이했다. 도시의 멀티플렉스와는 외관부터 다른데, 1층짜리 건물에 두 개의 상영관이 있다. 규모는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다는 사실, 날마다 4~5편의 최신작을 상영하고, 매점을 비롯한 휴게 공간도 아늑하다. 관람료는 일반 5000원, 3D 8000원. 자세한 상영 시간표는 홈페이지(yd21.scinema.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2길 24

☎ 전화 043-742-7053



우시(無錫): 알려지지 않은 도시 속으로



無錫

제가 대부분 한국 사람에게 이름도 낯선 중국의 우시라는 도시에 오게 된 것은 재외한국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지인의 추천에 전적으로 의지한 결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인들에게 우시를 설명할 때는 한국인들도 잘 알고 있는 '상하이', 'SK하이닉스', 'IKEA'를 거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시에서 3년을 지내고 올해 말 복귀를 앞둔 저는 지금 우리 동네 우시의 소소한 매력을 발견해가는 기쁨으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아쉬울 뿐입니다.

무석한국학교의 재탄생

2015년 3월 처음 무석한국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생각보다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실 외벽 곳곳에는 중국 특유의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페인트칠 역시 군데군데 벗겨져 교사인 저조차 수업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반감되었습니다. 당시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도 저와 생각이 같으셨는지 대대적으로 학교 전반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한국 학교의 시설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리모델링이 완성되었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안전하게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운동장의 트랙은 체중이 점점 늘어가던 저에게는 신이 내린 선물과 같았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는 허름한 건물의 외형 때문이었는지 우울하고 어두워 보이던 학생들의 얼굴도 지금은 초록이 가득한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면서 땀을 흘리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밝아 보입니다.

지단뽕, 유타오 ... 중국식 아침식사에 도전

제가 근무하고 있는 무석한국학교는 우시 시내에서 20분 정도 차로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이곳은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뉴 디스트릭트에 해당하는 신취 지역입니다. 학교와 맞붙어 있는 루이청귀지 아파트에 살다 보니 등교 시간인 8시 30분보다 10분 전에만 집에서 출발하면 학교까지 문제없이 세이프~! 중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해 이제 3학년이 된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때로는 지각이라며 앞서거니



우시 소개

상하이에서 불과 40분 거리에 위치하며, 한국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이다. 우시 북쪽으로는 중국인의 젓줄이라는 양쯔강이 흐르고 남쪽은 타이후를 향해 있는, 3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도시다. 강과 큰 호수를 기반으로 어업이 발달하고 쌀의 수확도 풍부한 지역으로 예부터 '어미지향(魚米之鄉)'이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한때는 주석 산지로 유명했지만, 한나라 때 이를 모두 채취한 이후 주석이 없다고 하여 '우시'라고 불리게 됐다고 한다.

- 그림 설명**
- ① **유탕마리탕** : 이 거리(난창지에)의 맛집으로, 볶음밥과 마리탕이 한국 사람에게 특히 인기다.
 - ② **돌솥비빔밥 식당** :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한국식 돌솥비빔밥 집으로, 채소와 김치가 듬뿍 들어 있어 최근 많은 사람이 즐겨 찾고 있다.
 - ③ **지단빙** : 밀가루 전병에 달걀과 각종 채소를 넣어 만드는 멕시코 부리토와 비슷한 음식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간식으로 꽤 인기가 많다.
 - ④ **바비만도우** : 중국 전역에 있는 빠오즈 체인점으로 각종 만두를 판다. 주로 아침에 많이 먹는다.
 - ⑤ **텐순위안** : 우시의 명물인 사오롱바오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안에 들어 있는 국물이 매우 뜨거우므로 먹을 때 조심해야 한다.
 - ⑥ **둥베이하이선고소** : 삼겹살, 닭 날개, 오징어, 오뎀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꼬치를 즉석에서 구워 먹는 맛도 색다르지만, 이 집의 별미는 튀니 튀니 해도 이탈리아인 봉골레 파스타가 연상되는 조개찜이다.
 - ⑦ **유티아오** : 중국의 거리 음식. 주로 아침에 두부탕에 곁들여 먹는 기다란 밀가루 튀김으로 칼로리가 매우 높다.

뒤서거나 반복하며 학교에 도착합니다. 학교에 가는 평일에는 아들에게 제공되는 아내의 한국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지만, '모두 잠든 후에' 홀로 깨어 있는 주말 아침에는 이러한 호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히 중국식 아침 식사에 도전해보곤 합니다. 아파트 앞 상가에 가면 수레에서 파는 지단빙이나 유타오, 토우푸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주변 환경이 깨끗한 식당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길거리 음식이다 보니 아주 가끔은 원인 모를 배탈이나 장염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위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다면 자신의 과민한 대장을 단련시킬 수밖에요. 그럼에도 제가 또는 우리 가족이 루이청귀지의 상가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몇몇 장소가 있으니, 바로 다음과 같은 곳입니다.

운하 따라 놓인 아기자기한 골목, 난창지에

지인들이 우시에 놀러 올 때마다 반드시 들르는 곳은 바로 운하와 수로를 따라 놓인 옛 저택을 볼 수 있는 난창지에입니다. 물론 이 거리의 분위기가 사실 상업적인 면이 강해서 항저우, 소주, 난징 등 운하가 있는 여느 관광 명소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난창지에는 규모가 크지 않은 대신 수로를 중심으로 주변 골목골목에 아기자기한 중국 토산품을 파는 가게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곳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오후 느지막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풍경과 거리를 구경하면서 다양한 중국 식당과 외국 식당 중 마음에 드





는 곳에서 식사하고 나면 어느덧 어둠 속에서 수로를 따라 운하의 수면을 빨강게 물들이고 있는 홍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차치하더라도, 난창지에는 이 광경 하나만으로도 방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우시에 오기 전까지 중국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타국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며 외국 생활에 거부감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해 왔지만, 중국은 언어·문화·음식 등 모든 것이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인 나라였기 때문에 우시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을 때 설렘과 기대감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불안감의 가장 큰 이유는 혼자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은 물론 이미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했던 일본, 미국과 달리 중국 문화라고는 어려서 읽은 <삼국지>, <서유기> 등 고전과 주윤발과 장국영으로 대표 되는 홍콩 영화(그나마 중국 본토 문화와 언어조차 달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지만)가 전부였던지라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는 큰 기우였으며, 지금의 저는 우시 곳곳의 시설을 편하게 이용하고 근처 공원의 농구장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농구도 하고 때때로 식사도 같이하면서 자유롭게 충실하게 중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도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저만의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제가 있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느끼는 것과 똑같이 충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영경

경기 수원외고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중, 어느 곳에든 오래 머무는 것에 익숙지 않은 노매드 기질에서 벗어나고자 중국 우시의 무석한국 학교에 지원하였다. 내년에 한국으로 복귀하면 그동안 관심을 가져온 세계 여러 나라의 WWF(세계자연보호기금) 공익광고(Public Service Advertising)를 더욱 깊이 공부하여 수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작은 계획을 갖고 있다.

감성 공간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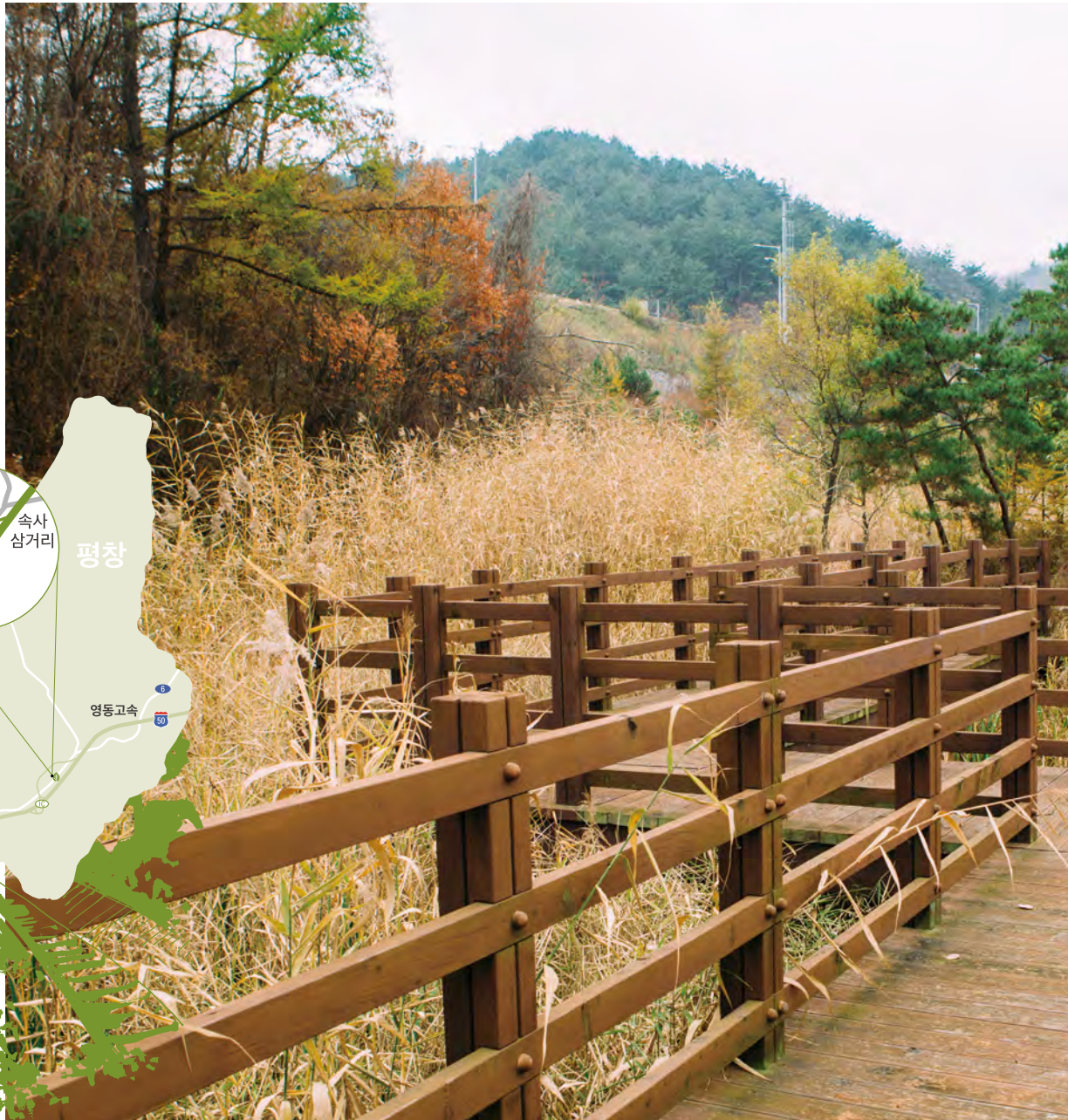
전쟁 직후에는 반드시 베이비붐이 일어난다. 죽음 앞에 한 번 몰려본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세포를 확산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국가도 그렇다. 한국전쟁 직후, 베이비붐과 함께 국가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이 일어났다. 온 국토를 갈아엎어 신작로와 고속도로를 내고, 산을 뚫어 철로를 놓았다. 가능한 한 사방팔방 모든 점을 그물처럼 잇고자 했다. 자연이나 생태, 추억의 가치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걸 비난할 수는 없다. 그때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테니까.



평창 생태 공원



영동선 폐도 복원 생태숲





연결 고리가 장벽이 되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국가 산업구조와 국민 생활 패턴의 변화로 새로운 도로나 철도가 생기면서 기존 도로나 철도는 버려지고,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기 시작했다. 연결 고리가 장벽이 되어버린 것이다.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속사나들목 부근의 영동선 폐도도 그중 하나였다.

버려진 철도에서 생태숲으로

다시 사람의 발길을 모으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손을 잡았다.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21억원으로 폐도 길이 2km, 부지 4만m²에 달하는 이곳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참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수종과 화초를 식재했다. 그리하여 3만6000여 그루의 나무와 11만 3000본의 화초로 이루어진 생태숲이 완성되었다. 폐도가 생태숲으로, 천덕꾸러기가 보물단지로 재탄생한 것이다.

의미가 붙여넣은 생기

같은 공간이라도 의미를 붙여넣은 순간, 그 공간은 전혀 다른 생기를 띠게 된다. 낡았다고 무조건 부수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찾아내고 드러내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야흐로 재생의 시대, 감성 공간의 시대다. 그곳만의 특별한 이야기와 사연, 인연 등을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 전략을 세우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해졌다.

공유경제, 소유물을

공유하기 시작하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업 모델을 내세운 서비스가 속속 생겨나면서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 유희 자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자 그리고 유희 자원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중계해 거래를 성사시키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자동차'와 '주거 공간'이다. 남은 자동차를 활용하겠다고 나선 것은 2009년 창업한 '우버'이며, 주거 지역 공유를 사업 모델로 내세운 기업은 2008년 창업한 '에어비앤비'다. 특히 에어비앤비의 경우 기업 가치가 현재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인 힐튼과 메리어트를 뛰어넘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2014년 10월 국내에 진출한 우버가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판정으로 인해 향후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황인 반면, 에어비앤비는 2013년 1월 국내 진출 이후 빠르게 사업을 확장해 자리를 잡은 상태다. 현재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로 등록돼 있는 수는 작년 기준으로 약 9800명으로 추산된다.

국내에 안착한

숙박 O2O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의 성공한 공유경제, O2O 서비스를 벤치마킹한 새로운 서비스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되고 있는 서비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에어비앤비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는 실패를 겪어야만 했다. 에어비앤비는 국내에서 이례적으로 성공을 거뒀지만, 그 이유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수요 층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전면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살펴보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공유경제 모델은 국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해온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

개인의 자동차를 공유하는 우버 대신 운송업체와 손잡은 카카오택시가 성공했듯, 국내에서는 작은 규모의 '사업자'를 연계해 호스트로 삼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으며, 법적 마찰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국내 숙박 앱이 에어비앤비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공급자로 유희 공간을 보유한 개인 대신 숙박업을 하는 사업자를 상정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선봉에 선 것이 '야놀자'와 '여기어때'다. 두 서비스는 유명 연예인을 기용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지금까지도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서비스는 모텔이라는 숙박업소가 갖는 퇴폐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고, 이를 양지로 끌어낸 고무적인 서비스로 평가된다.



새로운 트렌드, 숙박의 개념을 바꾸는 서비스

편리하고 저렴하지만,

그만큼 주의가 필요 에어비앤비, 야놀자

에어비앤비, 야놀자, 여기어때 모두 사용법은 유사하다. 앱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에 접속하면 디바이스의 정보를 통해 이용자의 위치 정보가 특정되고, 근처에서 임대 가능한 숙박업소가 표시된다. 숙박업소의 가격은 물론 실제 사진, 이용자의 후기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숙박업소 예약 및 결제도 해당 서비스를 통해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숙박업소도 불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고 해당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숙박 서비스를 통해 예약한 이용자를 홀대할 수 없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또 숙박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용자 위치를 위해 별도의 광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 호스트와 게스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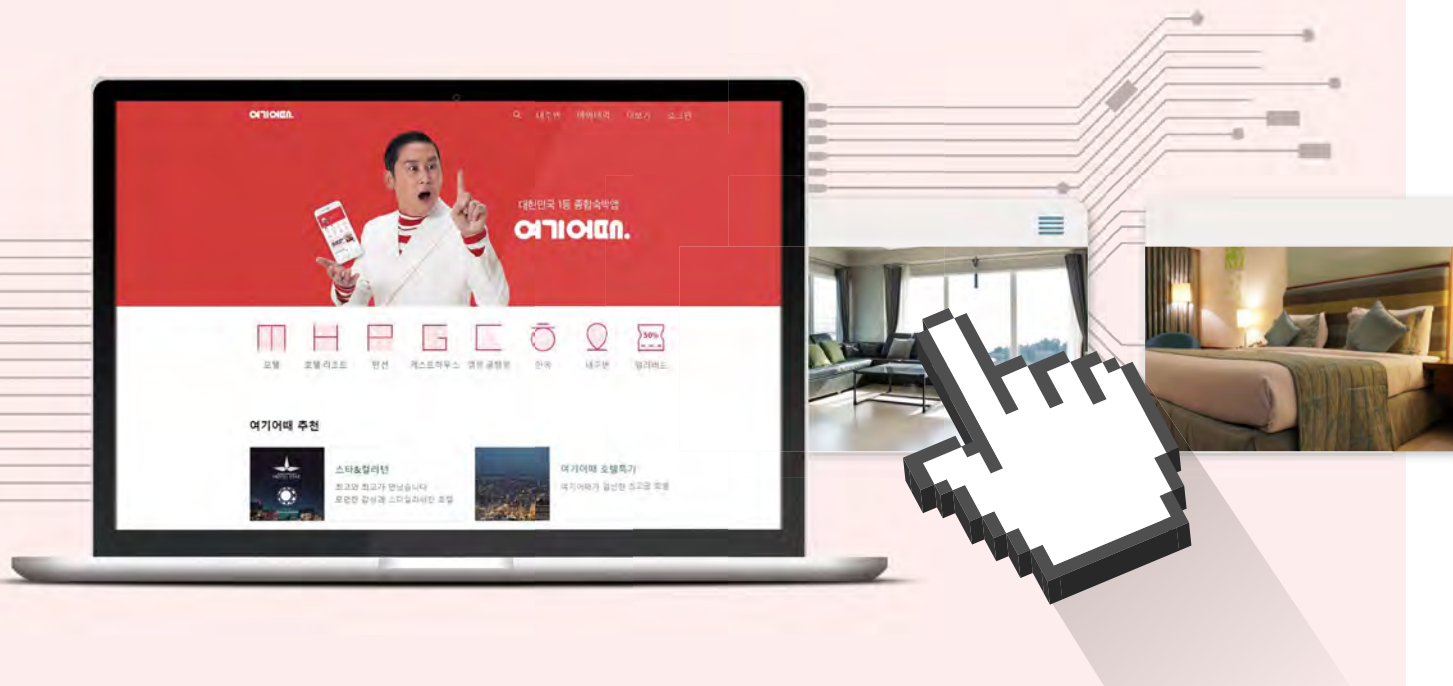
하지만 호스트가 대부분 사업자인 야놀자, 여기어때의 숙박업소와 달리 에어비앤비는 온전히 개인과 개인 간 이루어지는 서비스며, 플랫폼은 이 관계를 중계할 뿐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웹사이트보다 앱

더욱 편리한 서비스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소가 아닌 개인 주택을 주로 임대하기에, 주택 전체 혹은 방 하나만 임대할 수 있다. 집 전체를 임대하면 다른 사람이나 이용자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숙박소를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 하나만 임대하는 것보다는 비싸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한방에서 묵을 수 있는 다인실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저렴할 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와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행이나 개인만을 위한 자유 시간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경우 메뉴창에서 표시되는 기본 가격 외에도 인원 따라 혹은 옵션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때는 숙소의 열쇠를 받기 위해 호스트와 미팅을 효율적으로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전문 숙박업체를 주요 호스트로 삼고 있는 야놀자, 여기어때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숙박소의 퀄리티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에어비앤비든 국내 O2O 서비스든 실제 이용자들의 리뷰는 이용 전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자.





공감으로 연출하는 새로운 도전!

SEOULAME
설레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나는 가을 어느
일요일 오후, 한산한 거리를 지나 찾아가는 곳은 왕십리에
위치한 '예술이야 연기학원' 연습실. 뮤지컬 연습을 위해
모인 '설레임' 멤버들을 만나기 위해 찾은 연습실은 12월
정기 공연인 <렌트> 연습에 한창인 교사들로 북적였다.
공연을 한 달여 앞두고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멤
버들의 표정에는 전문 배우 못지않은 열정이 묻어났다.



뮤지컬 연구회 '설레임'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뮤지컬을 취미로 즐기는 이들이 있다. 언뜻 '뮤지컬은 전문가들만의 활동 영역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뮤지컬 연구회 '설레임'은 뮤지컬 전문 배우도 아니고, 전문 연출자는 더더군다나 아닌, 그저 뮤지컬이 좋고 사람이 좋아 뮤지컬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모인 교사 동호회다. 김진철 교사(서울 행현초)가 '설레임'을 결성하게 된 동기는 뮤지컬에 대한 관심과 열정 때문이다. 몇 해 전 친구들과 모여 '우리가 뮤지컬 <김종욱 찾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모두 흔쾌히 이를 수락해 실행하게 된 것. "뮤지컬을 직접 해보니 그 매력이 상당하더라고요. 계속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에 지인 교사 16명을 모집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모임이지만,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모집 글을 올린 후 멤버 수가 점점 늘어 현재는 전체 회원만 1200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2013년 결성해 어느새 창단 5년 차가 된 동호회는 현재까지 4회의 정기 공연을 하였고, 오는 12월에는 <렌트>로 5회 차 정기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한 도전 그리고 우정

뮤지컬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설레임'은 다른 동호회처럼 '누구나 시간 날 때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공연이 기획되면 함께할 멤버들을 결성하고, 멤버가 결성되면 이들은 한 팀이 되어 공연 전까지 정기적으로 모여 연습을 해야 한다. 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연습 기간이 평균 3~5개월 정도 되니, 한번 참여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기간에는 주말 시간을 고스란히 연습에 할애해야 한다.

김상현 교사(수원 매탄초)는 "설레임 활동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는 일 이거든요. 그리고 각자 소속된 학교가 다를뿐더러 교사라는 본업이 우선이다 보니 함께 시간 맞춰 연습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들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시기 때문에 이 모임이 앞으로도 쭉 이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공연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멤버들 사이의 관계는 어느 동호회와 다를 바 없이 끈끈하다. 힘든 여건에도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며 하나의 목표를 완성해가다 보면 저절로 우정이 생기게 된다고. 김효진 교사(남양주 심석고)는 “지난 5월 정기 공연을 위해 멤버들과 몇 달간 동고동락하고 나니 공연이 끝난 뒤에도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교사라는 공통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니만큼 공감대가 많아서인지, 두 달 동안 주말마다 만나서 신나게 놀았어요. 공연 연습을 하는 동안 서로 많이 친해졌다는 뜻이겠죠”라며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다.

교사들의 자기 계발에도 큰 도움

‘설레임’ 멤버들은 뮤지컬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자기 계발에도 큰 도움을 받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연기, 노래, 춤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니만큼 다양한 예



술 분야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뮤지컬 배우는 자신이 맡은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 극 중 인물을 연구함으로써 성격에 따른 감정 표현도 자연스럽게 구현해내야 한다. 그러니만큼 상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표현 능력도 향상된다. 이런 경험을 수업에 적용하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이해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표현 능력’을 높이는 법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최성훈 교사(서울 개운초)는 “작년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뮤지컬을 연습해 학예회 때 선보였습니다. 연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스로도 교사로서 많이 발전할 수 있었죠”라고 말한다.

김진철 교사는 “뮤지컬을 즐기는 데 필요한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함께하겠다는 의지와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교사가 뮤지컬의 매력을 느끼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설레임 SEOLAME

SEOUL Association for Musical Education

설레임 정기·초청공연

2016



서울교원음악축제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

2015



서울신규임용교사연수 초청공연
서울교육연수원 우면관



설레임 3회 정기공연
가나의 집 열림홀



설레임 1회 정기공연
가나의 집 열림홀

2017



설레임 2회 정기공연
가나의 집 열림홀



서울교원음악축제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



설레임 4회 정기공연
동송교회 열림홀



실천교육교사모임 초청공연
서울교육연수원 우면관



설레임과 함께해요!

서로서로 격려하는 '설레임', 학교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설레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 김진철 교사
010-9334-1309



더욱 특별하게 즐기는 연말 파티



벌써 2017년의 마지막 달이 찾아왔다. 지나온 1년을 돌아보기 위해 그동안 바빠서 만나지 못해 아쉬웠던 친구들과도 오랜만에 약속을 잡아본다. 맛있는 수제 맥주와 함께 연말을 기념하는 파티를 더욱 특별하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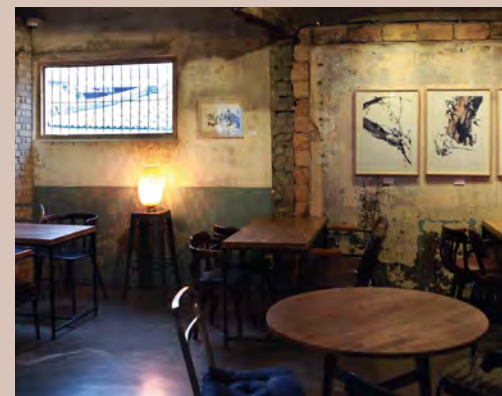
'재미주의자'들의 크래프트 비어 강남 더부스 브루잉

2013년 5월, '한국 맥주가 대동강맥주보다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이코노미스트> 소속 다니엘 튜더, 한의사 김희훈, 애널리스트 양성후 등 세 사람이 만나 이태원 경리단길에 15평의 작은 펍을 오픈했다. 2014년 전 세계 'Top 3 Brewer Mikeller'와 콜라보레이션하면서 '대(동)강페일에일'을 선보였고, 현재는 서울 시내에 6개 직영 펍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당시 수제 맥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부족했음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수제 맥주 계의 자존심이라 할 만하다. 성남 판교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양조장에서 뛰어난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는 강남 더부스 브루잉은 수제 맥주 본연의 맛과 향을 유지하기 위한 콜드 체인(냉장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매장에 신선한 맥주를 유통하고 있다. 특히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펍은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연말 파티를 위한 곳으로 부족함이 없다.



바다 내음과 술향을 가득 머금은 곳 강릉 버드나무브루어리

에메랄드빛 바다, 술향 가득한 강릉. 강릉의 겨울은 생각보다 따스하고 아름답다. 연말을 기념하기 위한 여행지로 손색없는 강릉에서의 밤을 보다 뜨겁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버드나무브루어리'가 그곳이다. 1926년 만들어진 강릉합동양조장을 이어받아 2015년 개장한 버드나무브루어리는 강릉의 맛과 향을 고스란히 담은 로컬 수제 맥주를 제조·판매한다. 강릉의 우수한 쌀, 술, 창포, 오죽, 커피 등을 활용하여 만든 이곳의 맥주는 독특한 개성을 살리면서도 맥주 본연의 맛을 놓치지 않았다. 펍 한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맥주를 양조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빈티지한 인테리어 덕분에 연말 분위기도 한껏 달아오른다. 최근 tvN 예능 프로그램 <알쓸신잡>에 등장하여 더욱 유명해졌다.





부산 최초의 미국 스타일 수제 맥주

부산 갈매기브루잉

2014년 5월 오픈한 '갈매기브루잉'은 부산 최초의 미국 스타일 맥주 양조장을 보유하고 있는 수제 맥주 펍이다. 해운대 중심에 위치하며, 부산을 여행하는 외국인이라면 꼭 한 번 들르는 글로벌 맛집이기도 하다. 양조장에서 만드는 고품질 맥주뿐 아니라 뉴욕 출신 셰프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요리도 주문 즉시 조리해 판매한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뉴욕과 부산의 맛이 조화를 이룬 '갈매기버거와 캐러멜과 흡의 강한 향이 일품인 아메리칸 페일 에일 스타일의 '갈매기브루잉 페일에일'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맥주와 음식을 판매하니, 여럿이 즐기는 연말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면 강력 추천한다.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마치 미국에 와 있는 듯한 펍의 분위기도 연말 파티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것이다.



맥주의 기본은 맑고 깨끗한 물

음성 코리아크래프트브루어리

그야말로 수제 맥주를 만들고 연구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제 맥주 양조장이다. 이곳이 음성에 자리한 이유 역시 한국 최고의 수제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맥주의 기본은 바로 '깨끗한 물'에 있는데, 음성은 맑고 깨끗한 물로 유명한 동네이기 때문이다. 이곳을 방문하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맥주를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본과 독일의 기술력에 한국의 기술을 접목해 모든 양조 시설을 구축했으며, 더 좋은 맛과 향을 내기 위해 수천 가지 파이프 부속품 하나하나를 수개월간 직접 연결했다. 그런 만큼 이곳은 단순한 수제 맥주 공장이다. 모든 것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자리하고 있다. 공장을 견학하는 것만으로도 수제 맥주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뀔 정도로 높은 품격을 자랑한다. 공장을 다 둘러보았다면 탱 룸에서 맥주를 즐겨보자. 여기에서는 음성의 로컬 푸드와 함께 맥주를 판매한다. 왓지저럴한 파티보다 혼자만의 특별한 연말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방문해야 하는 브루어리다.



글로벌 크래프트 맥주를 위한 발걸음

제주맥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로컬 맥주의 길을 걷고 있는 제주맥주는 수제 맥주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맛과 문화를 창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양조장을 둘러보는 것은 정말 황홀한 경험이 될 것이다. 제주맥주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양조장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는 단순히 공장을 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수제 맥주 체험 공간, 테이스팅 랩 등 체험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추억도 함께 쌓을 수 있다. 현재는 지난 8월 출시한 '제주위트에일'만을 판매하고 있다. 제주위트에일은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맥주 양조 30년 기술을 적용해 만들었으며, 제주의 물과 유기농 제주 감귤 껍질을 사용해 은은하고 산뜻한 맛이 일품이다. 그런 만큼 제주맥주에서 우리나라 수제 맥주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나우강을 따라 흐르는 질은 예술의 향기

오스트리아-빈

빈 여행은 문화면 문화, 역사면 역사 어떤 주제를 따라가도 여행자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음식과 와인을 테마로 여행 일정을 잡아도 좋다. 하지만 빈 여행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는 예술이 아닐까. 골목을 따라가며 느끼는 예술의 향취는 잊지 못할 감동과 여운 그리고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다.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미술 컬렉션

빈(Wien)이라는 도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술 아닐까. 1273년 루돌프 1세를 시작으로 1918년 카를 1세에 이르기까지, 무려 645년 동안 유럽의 절반을 지배했던 합스부르크(Habsburg) 왕가는 빈을 본거지로 삼았고, 대대로 어마어마한 미술품을 수집했다. 지금이야 합스부르크 왕가는 패망했고 오스트리아 역시 유럽의 소국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의 향기는 아직도 빈 시내 곳곳에 남아 이 도시의 고고함과 우아함을 여전히 유지해 주고 있다.

미술사 박물관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컬렉션을 모아놓은 곳이다. 100여 분의 러닝타임 중 3분의 2 이상을 빈 미술사 박물관에 대해 다룬 <뮤지엄 아워스>라는 영화도 있을 정도다. 영화의 줄거리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 사촌 동생이 혼수상태에 빠졌





다는 소식을 듣고 빈으로 향한 주인공 앤이 우연히 미술사 박물관에서 안내원으로 일하는 요한을 만나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 그런데 미술사 박물관에 발을 들여놓으면 별 내용 없는 이 영화가 현실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세계 미술사를 아우르는 눈부신 회화 작품과 조각 및 공예품, 고대 이집트 유물 사이를 걸어 다니다 보면 하루는 커녕 일주일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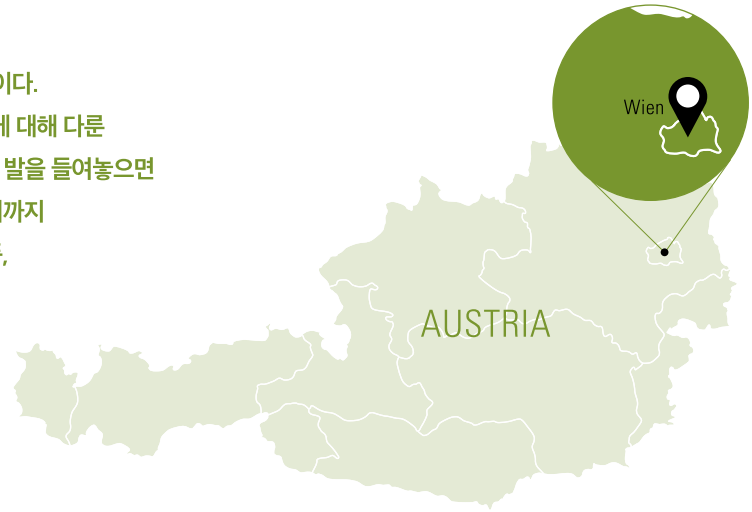
벨베데레 궁전도 빼놓을 수 없다. 빈 남동쪽에 위치한 바로크양식의 궁전인데, 이곳이 빈 여행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는 오스트리아가 배출한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원작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재 그림을 마주하는 감동은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림 앞에 서면 숨이 턱하고 막힌다.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림 앞에 서지만, 온몸을 덮쳐오는 감동은 상상 이상이 다. 머릿속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드는 것만 같은 압

도적이고 기이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눈물을 흘쩍이는 이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박물관 안은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굳이 '촬영 금지' 표지를 붙여놓지 않아도 될 듯하다.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는 셔터를 누를 생각조차 들지 않을 테니 말이다.

현대미술을 논할 때 항상 클림트와 함께 거론되는 예술가가 한 명 더 있다. 에곤 실레다. 스물여덟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화가. 그의 작품을 감상하고 싶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레오폴트 미술관으로 향해야 한다. 박물관의 원주인이자 미술 애호가였던 루돌프 레오폴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곳으로, 박물관 지구(Museum Quartier) 안에서 최고로 사랑받는 곳이다. 실레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을뿐더러 그와 가까이 지낸 클림트의 작품도 볼 수 있다. 상설 전시 외에도 근현대 미술과 관련한 특별 전시가 자주 열리는 만큼 빈 시민들도 새 전시를 보기 위해 미술관을 자주 찾는다. 알베르티나 미술관에서는 보다 현대적인 작품을

- 1.3. 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세계 미술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미술사박물관과 보다 현대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알베르티나 미술관을 걸어 다니다 보면 하루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2. 빈 여행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벨베데레 궁전에서 오스트리아가 배출한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원작을 감상할 수 있다.

미술사 박물관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컬렉션을 모아놓은 곳이다. 100여 분의 러닝타임 중 3분의 2 이상을 빈 미술사 박물관에 대해 다룬 <뮤지엄 아워스>라는 영화도 있을 정도다. 미술사 박물관에 발을 들여놓으면 이 영화가 현실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세계 미술사를 아우르는 눈부신 회화 작품과 조각 및 공예품, 고대 이집트 유물 사이를 걸어 다니다 보면 하루는커녕 일주일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만날 수 있다. 특히 신디 셔먼, 모리야마 다이도 등 현대 사진 거장들의 작품을 오리지널 프린트로 만나는 일도 진귀한 경험이다.

어깨 위를 흐르는 왈츠의 선율

빈을 찾은 사람은 대부분 미술관부터 달려가지만 빈은 음악의 도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슈베르트·요한 슈트라우스 부자·쇤베르크가 태어난 곳이 빈이고, 모차르트·베토벤·하이든·브람스·말러 같은 유명 작곡가도 빈과 인연을 맺었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세계 최정상급 교향악단이고, 빈 국립오페라하우스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오페라하우스 중 하나다. 빈을 방문했다면 꼭 뮤지크페라인에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어보기를 바란다. 음악 감상은 빈에서는 놓치기에 너무 가까운 기회이기 때문이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를 듣다 보면 어깨가 절로 들썩인다. 빈 오페라하우스의 좌석에 앉아 음악을 감상하려면 정장 차림을 해야 하는데, 입석표를 사면 자유로운 복장으로도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 요금은 4유로 정도. 공연 시간 약 2시간 전에는 입석표를 구할 수 있다. 빈 곳곳에서 열리는 야외 공연 역시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슈테판 대성당 뒤편에 자리한 휘가로 하우스(Higarohaus)는 모차르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다. 모차르트가 '휘가로'의



결혼', '돈주양'을 작곡하기 위해 머문 곳인데, 모차르트는 이곳에서 1784년부터 1787년까지 살았다. 시내 중심지에는 베토벤 하우스가 있다. 고풍스러운 건물의 좁은 계단을 따라 4층에 오르면 한때 베토벤이 머물던 방이 나온다. 그 방에는 베토벤이 쓰던 피아노와 편지,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다. 베토벤은 이곳에서 교향곡 4·5·7·8번을 작곡했다. 도시 남동쪽에 자리한 시립공원(Stadtpark)은 영국식 정원으로 수수한 조경이 매력이다. 이곳에는 슈베르트를 비롯해 요한 슈트라우스, 레하르, 브루크너 등 빈에서 활발히 활동한 음악가들의 기념상을 볼 수 있다.

왕가의 자존심을 간직한 건축물

빈 시내 곳곳에는 '해가 지지 않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이 넘쳐난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얼마나 번영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호프부르크(Hofburg)다.

호프부르크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황제인 카를 1세가 퇴위할 때인 1918년까지 황실의 궁전으로 이용되었다. 지금도 오스트리아 대통령 공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여 개의 박물관과 도서관·성당·승마학교·카페·레스토랑 등이 들어서 있다. 13세기 초반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해 20세기 초까지 개축과 증축이 계속된 만큼 각기 다른 시대의 건축양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기도 하다. 호프부르크로 들어서기 전, 미카엘 광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건물이 있다. 미카엘문 바로 건너편에는 주변의 화려한 건물과는 판이한 현대적이고 심플한 건물이 서 있다. 100년 전 지어진 로스 하우스는 현대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돌프 로스의 작품. 이 집이 지어질 당시 빈 시민들과 언론은 이 건물이 당시 빈의 전통 건축양식을 거슬렀다며 일제히 혹평을 늘어놓았고, 심지어 그는 경찰청에 불려가기도 했다. 결국 아돌프 로스는 창문 틀에 화분을 장식하는 것으로 극적 타협을 했다. 로스 하우스 바로 옆에는 왕궁에 커피와 과자를 납품하던

1. 빈 시내 곳곳에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황제인 카를 1세가 퇴위할 때까지 이용한 황실의 궁전을 만날 수 있다.
2. 프리드리히 폰 슈미트가 완성한 빈시청은 보는 이로 하여금 찬탄을 불러일으킨다.
3.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오페라하우스에서 듣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빈에서 놓치기에 너무 가까운 공연이다.





2

데멜 카페(Demel Cafe)가 있는데, 슈테판 대성당을 나와 호프부르크로 가기 전 이곳 노천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마시며 잠시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빈의 남서쪽 교외에는 199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쇤브룬 궁전도 있다. 쇤브룬 궁전은 합스부르크가의 여름 별궁으로, 궁전 안에는 자그마치 1441개의 방이 있다. 이 중 45개의 방만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합스부르크 왕가 유일의 여제이자 가장 강력하게 왕가를 주도한 마리아 테레시아 그리고 프랑스혁명 중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그의 딸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용한 방과 초상화 등을 직접 볼 수 있다. 이 궁전을 '베르사유 궁전'이라고도 부르는 까닭은 이곳에 1.7km에 달하는 베르사유 정원이 있기 때문이다.

호프부르크 건너편에 자리한 빈 시청은 프리드리히 폰 슈미트가 완성한 신고딕 양식 건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찬탄을 불러일으킨다. 이곳에서는 여름에는 필름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마켓과 스케이트장이 개장하는 등 1년 내내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시청 가까이 자리한 국회의사당은 그리스 신전 같은 외관이 매우 독특한데, 그리스에서 발생한 민주주의가 오스트리아에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은 것이라고 한다.



여행 정보



대한항공이 오스트리아 빈 구간을 운항한다. 빈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은 우리나라 돈가스와 비슷한 비너 슈니첼이다. 시청 앞에 자리한 카페 란트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단골로 찾던 곳. 멜랑주(커피와 거품을 낸 우유를 반반 섞은 부드러운 맛의 음료)가 맛있기로 유명하다. 슈테판 성당 앞에서 시작되는 게르트너 거리는 빈 최고의 변화가로, 보행자 전용 도로를 따라 고급 선물용품점과 현대적인 액세서리점, 부티크 브랜드 숍, 카페, 레스토랑 등이 늘어서 있다. 전 세계 오페라 하우스 등에 상들리에를 공급하는 롬마이어와 수 대째 장인이 직접 모자를 만드는 상점 울 바우어, 스와로브스키 등의 전통 있는 브랜드와 함께 SPA 브랜드 매장도 준비해 빈을 찾는 여행자라면 이 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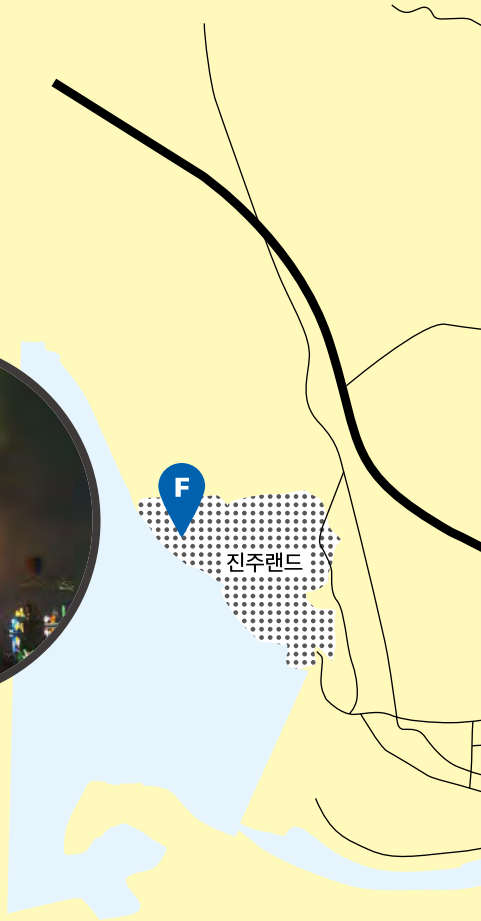
진주고등학교 주방권 추천 명소

박희운
교사가
추천하는

남강 '진주성' 축석루가 있는 역사와 전통의 도시 진주는 교육뿐 아니라 지방 예술제의 효시인 '개천예술제'와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남강유등축제' 등 세계적인 축제로도 유명하다.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찾아온 귀한 손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나 고민하다, 어릴 적 추억과 오늘날 우리의 삶이 잘 어울릴 수 있는 핫플레이스를 적절히 섞어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 행복한 여행안내를 설계해본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



A 2.52km / 약 6분

B 770m / 약 3분

C 72m / 약 1분

D 585m / 약 9분

영화 속 한 장면이 연상되는 '망진산'

이른 아침 진주 시가지를 내려다 보며 진주 8경 중 하나인 망진산을 오른다. 봉수대까지는 차를 타고 올라도 괜찮지만, 걸어도 20~30분이면 산정에 서서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고, 맑은 날이면 지리산 천왕봉까지 볼 수 있어 더없이 좋다. 여기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아름다움을 연출하기도 해, 좀 더 이른 시간에 움직인다면 마주한 월아산의 멋진 일출을 보며 작은 소원을 빌어볼 수도 있다.

넉넉한 인심이 느껴지는 '중앙시장'과 '제일식당'

일출을 본 뒤 새벽 시장이 한창인 진주 중앙시장에 들러 아침 식사를 한다. 농산물과 해산물에 생활필수품까지 없는 게 없는 이 시장에서 진주의 넉넉한 인심을 느끼며 제일 식당으로 향한다. 식당에 들어서면 해장국을 먹으려는 손님으로 붐비는데, 자리를 잡고 앉으면 해장국과 깎두기가 전부인 변변치 않은 상을 내어준다. 하지만 진하게 우려낸 뽕국 덕분에 해장국 맛은 예술 그 자체다. 식당에서 커피 한 잔 뽑아 들고 시가지를 가로질러 진주성으로 향한다.

행복한 시간의 연속, '진주성'

선조 25년 총무공 김시민 장군이 3800여 명의 군사와 성민의 힘을 합쳐 임진왜란 삼대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곳이다. 축석루에 올라 유유히 흐르는 남강을 내려다보면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성곽 주변으로는 진주박물관과 야외 전시장의 수많은 유적까지 우리를 반겨주니 행복한 시간의 연속이다.



진주의 특미를 자랑하는 '유정장어'

내친김에 서장대, 북장대, 공복문을 지나며 진주성과 시가지를 더 둘러보다 점심시간이 되면 오래전부터 진주의 먹거리로 유명한 장어구이를 먹는다. 축석문을 나서 남강 변을 따라 진주교를 향해 걸어가면 만날 수 있던 추억의 장어구이를, 매콤한 맛과 깔끔한 맛이 적당하게 잘 어우러져 비린내가 나지 않는 담백한 맛 그대로 공복문 앞 '유정장어'에서 맛본다.





E 8.13km / 약 13분

볼거리의 천국, '인사동 골동품거리'

길이 350m 도로를 따라 이어진, 우리 민속 공예품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재 등으로 볼거리가 많은 인사동 골동품거리를 걸어본다. 1970년대부터 형성되어 오늘날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골동품거리를 지나 강변에 이르면, 진주의 분위기와 딱 어울리는 음악 분수도 만날 수 있다.



F 5.41km / 약 11분

황홀한 풍광을 자랑하는 '진양호전망대'

차를 타고 진양호의 전망대로 향한다. 이곳에 오르면 수려한 풍광을 지닌 호수 위로 웅장하게 솟은 지리산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아침에 피어나는 호반의 물안개와 황홀한 저녁노을이 마음을 설레게 한다. 여기서부터 진양교에 이르기까지 남강 주변을 아우르며 멋진 추억을 만들기 좋다.



G

진주의 인심을 담은 '추천 맛집'

저녁 식사로는 평거동에 위치한 '아그라'에서 인도 요리를 먹거나 신안동 산청각에서 한정식을 먹는다. '민지가마술어탕'의 어탕과 '바다수산'의 회도 추천 요리. 약주를 즐기는 이라면 신안동 '실비거리'로 이동하여 어머니가 차려 주시는 주안상처럼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육해공'의 푸짐한 안주로 시원하게 맥주잔을 기울이면 더 행복하겠다.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차뜨락'을 찾아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며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주의 핫플레이스를 멋지게 그려보자.



나만의 핫플레이스를 추천해주세요.

독자 여러분이 자랑하고픈 곳이 있으신가요? <The-K 매거진>에 자신이 근무하는 곳, 살고 있는 곳 주변의 '나만의 핫플레이스'를 추천해주세요. 숨은 맛집, 가고픈 카페, 그윽한 풍경, 떠들썩한 유흥지, 머물고픈 공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성함, 연락처, 추천 장소와 이유를 간략히 작성해 보내주시면 선정된 분께 <The-K 매거진>이 원고 의뢰를 연락드립니다. 원고 게재 시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leemj@swadcom.co.kr



The-K와 함께 떠나는 12월 문화가 있는 날



이것이
우리의 춤이다

향연(饗宴)

전례 없이 전 회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 전통춤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향연>이 2017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향연>은 궁중정재부터 종교의식무, 민속무용까지 한국 전통춤의 대가들이 모여 우리 춤의 과거와 현재를 한 무대에 담아낸 작품으로, 종묘제례에서 추던 궁중무용, 바라춤과 같은 종교의식무, 장구춤과 같은 민속춤 모음을 계절에 따라 옴니버스 형식으로 풀어냈다. 한국무용의 높은 품격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 📅 **일시** 12월 14일(목)~17일(일) 목·금요일 오후 8시, 토·일요일 오후 3시
- 📍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 **관람료** VIP석 7만원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 📺 **프로그램** 궁중무용, 종교의식무, 민속무용
- ☎ **문의** 02-2280-4114

국립오페라단과 예술의전당이
선사하는 연말 선물

라보엠 (La Boheme)

푸치니의 대표작 <라보엠>이 국립오페라단과 예술의전당이 선사하는 연말 선물로 찾아온다. <라보엠>은 앙리 무르제의 소설 <보헤미안들의 인생풍경> 바탕의 꿈과 환상을 갈망하는 19세기 파리 젊은 예술가들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푸치니 작품 해석의 명장 카를로 몬타나로가 지휘를 맡았으며,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소프라노 윤정난·홍주영·이현·박은미, 테너 허영훈·김경호, 바리톤 김동원·정일현·우경식, 베이스 박준혁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짙은 감성이 묻어나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 📅 **일시** 12월 7일(목)~10일(일) 목·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일요일 오후 3시
- 📍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 **관람료** R석 15만원 / S석 12만원 / A석 8만원 / B석 5만원 / C석 3만원 / D석 1만원
- 📺 **프로그램** 파리 어느 뒷골목 가난한 연인, 로돌포와 미미의 애달픈 사랑 이야기 전 4막
- ☎ **문의** 1588-2514





‘중국의 피카소’
치바이스(齊白石) 작품전

치바이스-목장(木匠)에서 거장(巨匠)까지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부산박물관에서 ‘중국의 피카소’로 불리는 중국 근대기 화단의 거장 치바이스(齊白石, 1864~1957)의 작품과 유물을 선보인다. 치바이스는 중국 문인화의 대미를 장식하였음은 물론 현대적인 조형 감각으로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거장이다. 평범함에서 비범함을 찾아내는 주제 의식으로 동양화를 현대화한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새우’(1948)가 있다. 부산박물관은 그의 출생지인 후난성에 있는 후난성 박물관과 상탄시 치바이스 기념관이 소장한 그의 회화와 서예, 전각 등 133점을 후난성 출신 현대 서예가들의 작품 20여 점과 함께 선보인다.

- 🕒 **일시** 12월 10일(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 📍 **장소**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 🎫 **관람료** 무료
- 🏗 **전시 구성**
 - 첫째 장, 목장(木匠)에서 화가로 (1864~1918)
 - 둘째 장, ‘법고창신(法古創新)’을 모색하다 (1919~1928)
 - 셋째 장, 거장(巨匠), 대사의(大寫意)를 추구하다(1929~1957)
 - 넷째 장, 치바이스 조형 세계의 근원, 서예와 전각
- ☎ **문의** 051-610-7145

겨울 궁전에서 온
프랑스 미술

에르미타시박물관展

17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프랑스 미술 300년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전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히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시 박물관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프랑스 미술을 소장한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 니콜라 푸생, 도미니크 앙그르, 클로드 모네, 앙리 루소 등 프랑스 거장들의 회화와 조각, 드로잉 등 89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프랑스 미술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될 것이다.

- 🕒 **일시** 12월 19일(화)~2018년 4월 15일(일)
월·화·목·금요일(오전 10시~오후 6시)
수·토요일(오전 10시~오후 9시)
일·공휴일(오전 10시~오후 7시)
*개막식: 2017년 12월 18일(월)
-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1, 2실
- 🏗 **전시 구성** 앙그르의 ‘N.D. 구리예프 백작의 초상’ 등 17~20세기 초 프랑스 회화, 조각, 드로잉 등 89점
- ☎ **문의** 02-2077-9275



EXHIBITION

직접투자 주식, 바로 알고 투자하기

2017년 정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다. 연말이라 뜻 깊은 직장 행사도 많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을 맞이할 생각에 젖다 보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난다. 특히 주주에게 12월은 그동안 투자한 기업의 배당을 챙기는 소중한 달이기도 하다.

일정 기간 목표를 정한 후 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해 마련한 목돈은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정석이지만 저금리와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미명만 투자처를 찾기가 힘든 때다. 그렇다고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으로서 경매나 임대, 토지 거래에 무작정 뛰어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복리를 통해 원금의 두 배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알아보는 '72법칙'이 있다. 간단하게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기간이 나온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수익률 8%인 은행 상품에 넣어두면 9년 만에 2천만원이 된다. 1억원을 저축하면 9년 만에 2억원이 되니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기예금 1~2%의 저금리 시대에는 원금을 두 배로 늘리려면 36년 이상이 필요하다. 즉 은행 수익률로 종잣돈을 불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고, 코스피 또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식 붐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수익률 뚜껑을 열어보면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은 손실이 크다. 결국 '묻지마'식 분위기에 편승해 투자하다 보니 높은 가격에 매수한 후 연이은 주가 하락으로 속만 상하다가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따라서 리스크가 큰 투자일수록 철저한 연구와 분석은 필수다.

직접투자인 증권은 주식과 채권으로 나뉜다. 채권은 주식보다 위험이 적고 좀 더 안정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직접 거래 시 투자 액수도 커야 하고, 직장인으로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채권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 기대수익률은 낮다. 그러나 원금손실 발생 확률은 적다. 이에 반해 주식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주식을 단순히 게임하듯 투기식 단기투자로 접근하여 차트만 바라보는 기술적 분석에만 매달린다면 수수료와 거래세 등의 비용 가중은 물론, 주식투자를 업으로 삼는 전문가들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무모한 경쟁에 내몰릴 뿐이다.

올 초 각종 언론의 경제 관련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30개 종목을 골라 시물레



이션을 해보니 수익률이 마이너스 74%였다고 한다. “주식 하면 10명 중 9명은 손실을 본다”는 말이 결코 과장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78%, 기관 투자자의 수익률은 9%다. 주식을 자주 사고파는 매매 회전율이 개인, 기관, 외국인 순서임을 감안하면 개인들의 저조한 마이너스 수익은 신용 거래를 통한 단기 매매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원금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직접투자에 자신 없다면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 등 간접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마저도 불안하다면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와 같은 장기 저축이나 연금,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식은 단순히 증서나 상품이 아닌 회사 자체를 사는 것이다. 그런 만큼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높은 배당 성장과 연구 투자 확대, 성장 주력 제품 보유, 낮은 오너 리스크, 주주 친화적 기업을 발굴해 투자해야 한다. 더불어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자본 대비 이익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꾸준히 상승하는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주가수익비율(PER)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정도는 꼭 살펴보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특히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기업을 여유 자금으로 싸게 매수한 뒤 몇 년 동안만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주식이야말로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이상적 투자 상품이다.

문제는 성공적인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 기업만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적, 가치적 상황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거시경제, 금리, 경기선행지수도 살펴봐야 하고, 어떤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지와 선택한 업종 중에서 어떤 기업의 성장 여력이 큰지도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코스피와 코스닥도 투자 시기에 따른 수익률 차가 크다. 기준에 따라 성장은 더디지만 현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가치주로 종목을 구성하기도 하고, 주가는 조금 비싸더라도 수익 증가율이 높은 성장주 위주로 투자할 수도 있다. 목표수익률 설정도 중요하다. 20~30%의 수익률에 도달하면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하거나 비중을 줄여야 한다. 목표 매도손실률도 정해 일정 부분 이상 큰 손실이 난 경우 더 큰 손실로 이어지기 전에 매도하는 타이밍도 중요하다. 물론 여유 자금이 뒷받침되고 정확한 기업 및 재무 분석을 통해 성장을 확신하는 기업인 경우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목표 및 손실 수익률을 좀 더 높거나 낮게 조정할 수 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3

개 종목으로 집중 투자하면 좋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에 본인이 분석할 수 있는 범위로 종목 수를 늘려 업종이 다른 5개 내외로 적절히 분산하자.

마지막으로 온라인 투자 증권을 이용해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잦은 매매를 지양해야 한다. 0.3%일지라도 거래세가 누적되면 수익률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된다. 0.3%의 거래세를 100번만 내도 원금의 30%가 사라진다는 끔찍한 상상이 가능하다. 매매 수수료도 최소화해야 한다. 다행히 대부분 증권사가 온라인 비대면 증권 계좌 개설 시 일정 기간 동안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KB증권은 10년, 한국투자증권 5년, 미래에셋대우는 8년, 신한금융투자는 2030년까지 수수료가 무료다.

주식 투자에 아무리 자신 있다고 해도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은 절대 금물이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파생상품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으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순식간에 빚까지 지며 자산을 탕진할 수 있는 선물과 옵션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직장인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 본업이다. 한시가 멀다 하고 주식 시세나 차트만 쳐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본적인 기업 분석이 선행된 우량주 저점 중·장기 투자만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냉혹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모범 답안이다.

직접투자인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먼저 워런 버핏의 인터뷰 자서전 <스노볼>과 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두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과 필립 피셔가 각각 저술한 <현명한 투자자>,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세 권은 꼭 읽어보고 투자하길 권한다.

최지만

부천 석천초 교사. 개인 투자자로 KBS <이침미당>, MBC <경제매거진>, EBS <부모광장>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2015~2016년 <한국교육신문>에 경제 칼럼을 기고하였다. 국무총리·교육부장관·경기도지사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76만 공제회원 권익 대변 위해 노력할 터”

햇살마저 노랗게 비치는 은행나무로 가득한 늦가을의 대구가톨릭대학교 캠퍼스는 낯선 방문객의 기분마저 한껏 밝게 만들었다. 삼삼오오 벤치에 앉아 가을 오후의 여유를 즐기는 풍경 속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제21대 대의원인 서보욱 대구가톨릭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학장을 만났다.



제 21대 대의원 서보욱 대구가톨릭대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학장

지난 11월 1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제21대 대의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서보옥 학장은 제20대 대의원에 이어 연임으로 3년 더 활동하게 됐다. 더욱이 이번 임기 동안에는 대의원분과위원회 제도 분과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회원을 대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권유에 추천을 수락하고 대의원을 시작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어 예결산분과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제도분과위원회 활동을 하게 돼 초기에는 다소의 이해하기도 했지요.”

아닌 게 아니라, 새 공제제도인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The-K복지누리대여 출시,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결정 체계 수립이 지난 제20대 대의원회의 대표적 성과로 꼽히는 가운데 제도분과위원으로서 그의 전문성은 단연 필요로 했다.

“당시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을 조정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라는 교육부, 국민권익위, 감사원, 국회 등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급여율과 함께 회원들의 기대치를 낮춰야 하는 ‘악역’을 자처해야 했지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두 차례의 급여율 조정을 수용해준 대의원과 공제

회원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보옥 학장은 대의원분과위원회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일부 대의원분과위원의 연임 추진안에 따라 한 번 더 제도분과위원으로 추천받아 활동하게 됐다. “지난 임기 동안에는 재정 건전성과 회원들의 권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는 까닭에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제회의 준비금 적립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도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즉 두 마리 토끼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번 임기 동안에는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서보옥 학장이 공제회원이 된 것은 지난 1989년, 어느새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초·중·고와 달리 대학은 개별적·개인적 특성이 강하고 정보 교류와 공유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상대적으로 뒤늦게 장기저축급여를 ‘풀(full) 구좌’로 불입했고, 지금은 더 일찍 많은 저축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웃음) 요새는 주위에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동료와 선후배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공제회를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더 다양한 혜택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제회의 준비금 적립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도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즉 두 마리 토끼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번 임기 동안에는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대의원회=공제회 최고 의결 기구로 정관 변경, 사업의 기본 계획 및 예산 심의, 결산 보고, 기타 공제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을 의결한다. 대의원회 심의에 앞서 실무 검토를 위해 제도분과위원회와 예결산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17개 시도별로 3~10명까지 대의원 선출위원회에서 선출된 82명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공유가치 창출하며 아름다운 상조 문화 선도하는

예다함 ‘사랑(愛)다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설립한 The-K예다함상조가 지역사회와의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상조업계에 모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예다함은 지난 9월 열린 ‘제4회 CSV 포터상 시상식’에서 상조업체 최초로 프로세스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CSV 포터상’은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 활동이 뛰어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예다함의 경우, ‘사랑(愛)다함’ 프로젝트가 차상위계층 및 빈곤 노인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모두 추구하는 뛰어난 CSV 사업으로 인정받았다. 기업의 기본적 사회공헌활동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을 실천 중인 예다함을 소개한다.

더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The·K 예다함상조

*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란, 기업의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 경영전략 모델로 세계 3대 석학 중 한 명으로 불리는 하버드대 마이클 E. 포터 교수가 2011년 1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에 기고한 논문 ‘자본주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How to Fix Capitalism’에서 소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이 단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사회와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구축하면서 국내에서도 몇 년 전부터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재무 건전성 No.1 상조회사

'The-K예다함상조'

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대한다는 뜻의 '예우'와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인 '다함'을 더한 예다함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상조업계 최대 자본금 500억원을 100% 출자하여 설립한 상조회사다.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 납입금에 대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급보증을 하고, 3개 은행(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해 4중으로 고객 납입금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공개한 국내 상조업체 회계 감사 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4대 재무건전 지표(지급여력비율 110% 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 90% 미만, 영업현금흐름 250억원 이상, 자본금 100억원 이상)를 모두 충족한 회사는 예다함이 유일했다. 재정난으로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한 추세임에도 예다함은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CSV(공유가치창출) 프로세스 구축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앞장

예다함은 탄탄한 재무건전 지표를 바탕으로 설립 초기부터 기업의 핵심 가치를 '소통과 나눔'에 두고 노인 1인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 개선을 위한 수익 모델을 모색해왔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사회공헌 활동이 주목되는 가

예다함은 탄탄한 재무건전 지표를 바탕으로 설립 초기부터 기업의 핵심 가치를 '소통과 나눔'에 두고 노인 1인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 개선을 위한 수익 모델을 모색해왔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덕목으로 사회공헌 활동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기업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공유가치 창출, 즉 CSV가 기업의 새로운 미래 성장 경영 전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운데, 지역사회와 기업 구성원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공유가치창출, 즉 CSV가 기업의 새로운 성장 경영 전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예다함은 다양한 CSV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지난해 7월부터 진행 중인 '사랑(愛)다함'이다.

'사랑(愛)다함' 기부금은 예다함 홈페이지에서 전자청약 등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가입한 고객의 초회 납입금 10%와 전 임직원 급여 중 1000원 미만 자투리를 모아 조성된다. 이렇게 마련한 기부금 2000만원을 올해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무료 자선의료기관인 요셉의원에 전달했다.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요셉의원은 1987년 설립 이래 사회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환자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기부금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게 진료 및 무료 급식, 생필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됐다.

'사랑(愛)다함' 프로젝트의 특징은 고객이 직접 기부를 하지 않아도 예다함에 가입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동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점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모두 추구하는 뛰어난 사회공헌사업으로 인정받아 'CSV 포터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예다함은 창립 초기부터 모기업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함께 전국 초·중·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조손(祖孫)가정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상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장례지도 전공 우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수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예다함은 지난 10월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17 국제비즈니스 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 부문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 외적으로 예다함의 공유가치창출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성과를 인정받은 셈이다.

예다함 김형진 대표이사는 "기업 역시 사회 일원으로서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착한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고객사랑에 보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합리적이고 차별화된 장례 서비스 선도

예다함은 소비자 편에서 합리적이고 차별화된 가격으로 착한 장례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장례 후 사용하지 않은 품목(수의·도우미·버스·횡대)에 대해 100% 환불해주는 '페이백(Pay-back) 시스템' 뿐만 아니라 노잣돈, 수고비 등 금품 요구



나 수수 시 기납입금을 100% 환불해주고 해당의 전을 무료로 진행하는 '부당행위보호시스템', '품질보증시스템'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올바른 장례 문화를 선도하며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예다함은 올해에만 고객감동브랜드지수, 브랜드 고객충성도, 프리미엄브랜드지수, 한국소비자웰빙지수,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예다함은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고자 총 4종의 상품을 갖추고 있다. 업계 최고급형인 '예다함VIP'과 프리미엄급 '예다함信500', 합리적 가격대의 실속형인 '예다함信390'과 '예다함信360'이 그것. 모두 소비자가 원하는 장례 규모와 소비자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상품이다.

가입은 전화(1566-6644) 또는 예다함 홈페이지(www.yedaham.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예다함에 가입하면 부고 알림, 온라인 법률상담, 별초 등 예다함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예다함 고객센터

☎ 1566-6644

(운영시간: 평일 월~금요일)

09:00 ~ 18:00

- 1번 : 예다함 회원

- 2번 : 예다함 비회원

예다함이 특별한 이유, 전문장례지도 시스템

전국 직영 의전망 구축 및 국내 유일 전문장례지도사 정규직으로 채용



예다함의 상조 서비스가 특별한 이유는 인적 서비스 품질 관리와 향상을 위해 전국 직영운영시스템을 갖추고 동시에 전문장례지도사를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꼼꼼한 고객서비스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이는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 168개사 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예다함만의 강점이다.

130여 명의 예다함 전문 장례지도사는 모두 장례지도학을 전공했거나 전문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평균 연령 29세의 비교적 젊은 장례지도사임에도 예다함만의 특화되고 체계화된 6개월 간의 장례지도 전문교육과 예절교육과정까지 수료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주 결을 지키며 정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돕는다. 하지만 그 어떤 교육보다 예다함 전문 장례지도사의 차별화된 점은 '진정성'과 '윤리의식'이라고 예다함 의전진행팀 윤화수 과장은 설명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잘 사는(웰빙)' 것은 물론 '잘 가는(웰다잉)' 것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진 지금, 예다함의 투명하면서도 전문화된 장례지도 문화와 CSV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치 척도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The-K 예다함상조

예다함 상품

예다함VIP



상품가 10,000,000원
월납입금 55,560원 ~
특징 최고급형 VIP의전용

예다함신500



상품가 5,000,000원
월납입금 27,780원 ~
특징 주요품목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형

예다함신390



상품가 3,900,000원
월납입금 21,670원 ~
특징 대중적 안정맞춤형 합리적 구성

예다함신360



상품가 3,600,000원
월납입금 20,000원 ~
특징 실속형 소규모 장례용품 구성

예다함의 투명하고 아름다운, 소비자 중심 및 고객서비스 혁신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에는 국제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이라 일컫는 '3rd Asia-Pacific Stevie Awards'에서 고객 서비스 경영 부문 'Silver Stevie(은상)'를 수상하였다. 올해 역시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지수(KS-PBI), 한국소비자웰빙지수(KS-WCI)에서 각각 1위를 수상하였으며, 미국의 10대 컨설팅사인 Brand Keys, New York와 한국소비자포럼이 공동 주관한 2017 브랜드고객충성도 대상에서도 장례 서비스 부문 1위에 올랐다.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수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1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10회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에서 '기타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관련 활동을 종합 평가해 고객과 소통이 활발한 기업·공공기관 등을 발굴, 시상하는 이 부문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힌다. 3500명의 고객패널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전문가 집단의 진단 및 평가를 거쳐 수상이 결정된 공제회는 ▶교직원을 타겟으로 하는 공감·일반정보형 콘텐츠 제작 ▶실제 회원 체험 스토리와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 전달하는 운영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The-K SNS기자단의 기획 등을 활용한 블로그의 콘텐츠가 돋보이고, 콘텐츠를 활용해 이용자의 소비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켰다는 평가도 함께 받았다. 공제회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회원과 소통해 오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경제·사회·환경 등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15-2016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경영일반과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알리고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08년부터 격년 단위로 발간, 이번이 5번째다.



이번 보고서는 크게 ▶교육가족의 정직하고 믿음직한 동반자(윤리경영, 이해관계자 소통 등) ▶교육가족의 행복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치창출, 회원중심경영, 개인정보 보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따뜻한 동반자(사회공헌, 환경경영)로 구성돼 있으며, 이밖에 공제회 소개, 공제제도, 비전 및 전략, 지배구조 등의 주요 현황을 함께 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제회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요 이슈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평가한 중대성 평가에서 ▶자산건전성 제고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 ▶리스크 관리 및 위기 대응 ▶공제제도 연구 개발 ▶개인정보 보호 ▶회원 복지서비스 제공 ▶법률 및 규제 준수 ▶수익 창출과 이해관계자 분배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 ▶회원중심경영(CCM) 운영 등 10개 과제가 채택됐으며, 특히 상위 1~3위에 해당하는 가치창출 부문에서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항공과 운임료 할인 업무제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1월 6일 (주)제주항공과 항공 운임료 할인 등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제휴로 공제회원(직계가족 포함)은 제주항공 이용 시 국내선은

4.8~11.7%, 국제선은 3~8.5%의 운임에 대한 항공사 등급별 할인을 적용 받게 된다. 또, 운임료에 대한 5%의 포인트 적립도 받게 된다. 대상노선은 국내선은 제주·부산 등 9곳, 국제선은 도쿄, 베이징, 광, 방콕 등 27곳이다.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기업 우대 서비스에서 임직원 기업코드(보통 홈페이지 공지)를 입력하면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 공제회는 회원의 생활 복지를 위해 이스타 항공, 에어부산과도 업무제휴를 맺은 바 있다.

참나눔봉사단, 무료급식 봉사활동 펼쳐

한국교직원공제회 '참나눔봉사단'은 지난 10월 26일 서울 다일공동체 밥퍼 나눔운동본부를 찾아 후원금 200만원을 기부하고, 노숙자와 무의탁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공제회 임직원 40여 명은 400인분의 식사 준비와 배식, 설거지 등을 도왔다. 공제회는 2009년부터 '참나눔봉사단'을 구성해 매월 1회씩 조손가정 무료장례지원, 사랑의 연탄배달, 김장 나누기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왔다.



The-K호텔서울, 2018 웨딩 프로모션

The-K호텔서울은 다가오는 2018년, 인생의 새 출발을 계획하는 예비 부부를 위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식일 기준) '2018 뉴이어 선데이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내 토요일 저녁 또는 일요일에 결혼식을 올리는 고객에게 식사 20%, 플라워 데코레이션 50%, 음주류 50% 할인을 해준다. 또한 무료 프로포즈 이벤트, 상견례 식사(6인), 뒤풀이 피로연 할인, 결혼식 당일 호텔 허니문 객실 등의 특전도 제공한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The-K호텔서울은 고객의 취향 및 하객 수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웨딩홀을 비롯, 1200여대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thek-hotel.co.kr) 참조. ☎ 전화 02-526-9400



The-K호텔경주



12월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핫 스파(Hot Spa) 패키지'를 선보인다. 객실 1박, 조식 2인, 사우나 2인 이용권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12만7000원~15만2000원. 12월 23~24

일, 30~31일, 2018년 2월 15~17일은 성수기 요금에 적용된다. 12월 31일 투숙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새해맞이 패키지'도 선보인다. 객실 1박, 떡만둣국, 한방차, 탁상용 달력, 해맞이 행사장까지 버스 왕복 교통편을 제공하며 가격은 16만원이다. 이밖에도 크리스마스 디너 및 송년 디너 뷔페도 함께 운영한다.

☎ 전화 054-745-8100

The-K설악산가족호텔

2018년 1월 27일까지 윈터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주중(일~목)에 객실을 20평형 4만원, 29평형 6만6000원, 47평형 12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단, 금·토요일 및 12월 23~31일은 주말 요금이 적용된다. 주말 이용 고객은 조식 2인 식사(황태해장국 또는 초당순두부)가 제공된다. 프로모션 기간에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은 노래방·탁구장 20% 할인 및 인근 척산온천과 석봉도자기미술관 입장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전화 033-639-8100

The-K호텔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이벤트

연말을 맞아 각 지역의 The-K호텔에서 공제회원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동백꽃이 아름답게 피는 계절을 맞아 오는 12월 21일까지 '동백꽃 필 무렵' 패키지를 선보인다. 객실 1박, 동백 수목원 '카멜리아 힐' 2인 입장권, 에코백 만들기 체험권, 스포츠센터(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2인 이용권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11만8000원이다. ☎ 전화 064-729-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

가족·지인과 함께 2017년을 마감하는 '송년콘서트'를 12월 24일과 31일 개최한다. 통기타연주를 감상하면서 저녁 특선뷔페를 즐길 수 있으며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호텔 숙박권, 온천 이용권, 조식 뷔페권 등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가격은 1인 3만2000원.

☎ 전화 061-783-8100



2017년 The-K 매거진 '마지막' 이벤트

늘 마음에 있었지만 선뜻 지르지 못하고 지갑 눈치만 보다
 많 다운 한번 잘해서 마련해 볼 절호의 기회!

이벤트 기간 12월 1일~28일



삼성 UHD TV 1명
 [UN55MU6300F]
 (벽걸이/스탠드/고정벽걸이형 138cm)



다이슨 무선청소기 V8 카본 파이버 2명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 5명



마지막 이벤트 칭찬해! 슈퍼그레이트!



패밀리 외식통합이용권 5만원권 3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기프트콘 500명



<The-K 매거진>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 + 참여 방법** <The-K 매거진> 앱을 다운받습니다 ...> 최초 실행 시 이벤트 참여 팝업이 열립니다 ...> 참여버튼을 누르면 이벤트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당첨 상품 확인 후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당첨되길 기다립니다.
- + 당첨 발표** 2018년 1월 16일 (<The-K 매거진> 홈페이지에 당첨자 게시 및 개별 연락)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

너를 위해 준비했어!





12월 즉석 당첨 이벤트

내거인 듯 내거 아닌 내거 같은 상품을 GET할 수 있는 기회!

이벤트 기간 12월 1일~25일

QR코드로 바로 당첨을 확인하는 <The-K 매거진>만의 이벤트!
총 50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오! 이걸 꼭
참여 해야해!



QR코드를 스캔하여
지금 바로 당첨 확인하세요!



100매

문화 상품권
1만원권
(모바일)



200매

CU 상품권
5천원권
(모바일)



200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기프트콘



날 스캔하게
만들다니~

+ 참여 방법

상단의 QR코드를 찍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12월 즉석 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성별과 연령을 체크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기재 또는 미기입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프트콘은 1월 중순 발송 예정)

The-K INFORMATION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입니다. 회원들의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위하여 저축·보험·대여 등 각종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8개 출자회사(호텔·손해보험·실버타운·상조·저축은행·골프장·복지포탈) 및 다양한 생활·문화 서비스를 통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축

교육가족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고수의 저축제도



장기저축급여
노후 자금 마련 위한 장기 저축
(연복리 3.6%)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풍요로운 노후 위한 연금형 상품 (연복리 2.8%)



목돈급여
현직 회원의 고수의 저축 상품
(이율 2.2% 내외)



퇴직생활급여
퇴직 회원의 노후자금 운용 위한 상품
(이율 2.18~2.8%)



대여

교육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간편하고 신속한 대여제도



일반대여

저축 한도 내 단독대여, 초과시 보증대여
(연이율 3.6%)



The-K 복지누리대여

최초 대여, 결혼·출산 시 이용 가능
(연 2.99%)



무이자대여

보건의료·재해복구 자금
1~2년 내 원금분할 상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이 되면 다양한 금융·복지 제도 및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일반회원이, 퇴직 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또는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하면 특별회원이 됩니다.

- 일반회원 가입자격**
 - 국·공립 각급학교, 교육연수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의 공무원
 - 사립 각급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 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 등
- 특별회원 가입자격**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 정년·명예·임기만으로 퇴직한 교직원
 - 만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 상병으로 퇴직한 교직원 등

※ 자세한 사항은 회원콜센터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회원콜센터

1577-3400

🏠 홈페이지





회원수

76만명



자산

31조원



보험

교육가족만이 가입 가능한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는 보험제도

보장기간 보장내용	0세	20세	40세	60세	80세	100세	종신
 종합 보험	종합공제 교직원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종합보험						
	더블업종합공제 은퇴 이후 2배로 보장받는 종합보험						
 건강·질병 보험	두번보장암공제 두번째 암까지 보장받는 암보험						
	교직원라이프건강공제 100세까지 빈틈없는 설계로 실속있는 건강보험						
 자녀 보험	자녀공제 월 1만원으로 자녀를 지키는 어린이보험						
	명품자녀공제 자녀의 건강과 교육을 한 번에 해결하는 어린이보험						
 시니어 보험	시니어공제 제 2의 인생, 시니어라이프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시니어암공제 고령층(고혈압·당뇨환자 포함)위한 암보험						
	교직원라이프간편가입공제 유병자, 고령자를 위한 간편가입보험						
재해보험	재해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라이프'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교직원복지기관의 보험제도로서 최고의 안전성과 공신력을 보장합니다. 교직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갱신형이 아닌 확정형 상품
가입시점 부담금이 그대로
유지돼 가입자에게 유리



국내 최초 교직원 전용 위험률 적용
및 낮은 사업비 책정
민영사 대비 저렴한 부담금 자랑

※ 자세한 사항은 보험콜센터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콜센터

1577-3993

🏠 홈페이지





힘이 되겠습니다

귀여운 아들의 웃는 모습,
승진으로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남편,
다음달 타게 될 5년 부은 적금,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우리 반 아이들.

때론 생각만 해도 웃음 지어지고
힘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제도, 교직원라이프는
항상 교육가족 곁에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